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Lives of the Stoics · Chapter 18 SENECA THE STRIVER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Ryan Holiday & Stephen Hanselman, Lives of the Stoics — 「Seneca the Striver」 (원서 PDF 131~145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12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쉬지 않고 애쓴 사람이 한 번도 묻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세네카는 죽은 뒤의 명성을 하찮게 여긴 많은 동료 스토아와 달리 그 명성을 갈망했고, 실제로 오늘날 가장 널리 읽히는 스토아가 되었다. 그는 병과 유배를 견디고 네로의 스승이 되어 가장 부유한 스토아가 되었지만, 그 자리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는 오랫동안 묻지 않았다. 공부에도 '애쓰는 사람'의 함정이 있다. 쉬지 않고 문제집을 넘기면서도 이 방법이 맞는지 한 번도 멈춰 묻지 않으면, 노력은 엉뚱한 곳에 쌓인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16장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전자책이라 인쇄 쪽 번호가 없음).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시·대화·책 목록)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도가 없는 나라를 섬기는 부끄러움 — 공자와 세네카(142쪽 ¶3~¶4) / 사후 명성을 갈망해 가장 널리 읽히게 된 사람(132쪽 ¶1~¶4) / 권력으로 무엇을 하는가 — 『관용론』(137쪽 ¶6 ~ 138쪽 ¶1) /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말과 행동뿐(138쪽 ¶5)
4~5	**밑줄 함축 의미**	laid siege / squatters / one good thing every day / the bar of self / walk a razor's edge / one piece ahead / out of the frying pan and into the fire / Most of death is already gone / a Faustian bargain / vegetables baked into a child's muffin / lead a horse to water / Gatsbyesque parties / the drops of red / Tyrannodidaskalos / Crimes often return to their teacher / emperor of oneself
6	지칭 추론	he·his가 네로와 세네카 사이를 오가는 139쪽 ¶2~¶3 / she = 포르투나(134쪽 ¶2 · 136쪽 ¶4) / him = 클라우디우스 · their son = 네로(136쪽 ¶6) / they = 세네카와 부루스(139쪽 ¶6) / his brother's son = 세네카의 조카 루카누스(144쪽 ¶1)
7~8	내용 일치·불일치	아그리피나와 소환(136쪽 ¶6~¶8: 12세 · 49 AD · 53세 · 철학이 아닌 정치 전략) / 상실과 추방(135쪽 ¶1~¶3: 39 AD 92세 · 40 AD · 20일 · 클라우디우스 · 41 AD 45세 · 8년) / 출생과 가족(132쪽 ¶5~¶6) / 65년의 음모(144쪽 ¶1)
9~10	**어법**	So + V + S 도치 · Never did 도치 · Little did 도치 · Only belatedly did 도치 · as much A as B · cause + O + to V · it was here that 강조구문 · 현수 분사(Having married ~, one of her first moves) · have + O + p.p. · see + O + p.p. · would have p.p. · What절 주어 + 원형부정사 보어 · get + O + to V · as + 대동사 + S — 9번은 귀국 · 세야누스 · 카누스(134쪽 ¶5~¶7), 10번은 재산과 두 얼굴 흉상(140쪽 ¶2~¶3)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moral · moderation · fleeting↔lasting · content · sounder — 11번은 133쪽 ¶1~¶2 / leery↔trusting · futile↔effective · frugal↔extravagant · meager↔ample · sullen↔cheerful · principled↔unprincipled
12	빈칸 추론	What he had never done was stop and question(141쪽 ¶3) / Most of death is already gone(136쪽 ¶1) / what one does with power(137쪽 ¶7) / the greatest empire is to be emperor of oneself(143쪽 ¶6) / his life, his example(144쪽 ¶3)
13	문장 삽입	물러나려는 시도 → 재산의 짐 → 재산을 모두 가져가 달라 → 깨끗한 은퇴 → 며칠 뒤 또 한 명의 적(141쪽 ¶5~¶8) / 저녁 일기 쓰기(133쪽 ¶4)
14	무관한 문장	은퇴 뒤 3년의 글쓰기와 기쁨(143쪽 ¶1~¶2)에 같은 장의 다른 사실(형제 갈리오와 세네카의 집정관직, 139쪽 ¶1) 끼워 넣기 / 재산과 흉상(140쪽 ¶2~¶3)
15	순서 배열	유언장 거절 → 친구들에게 본보기 → 파울리나에게 당부 → 함께 죽으려 함(144쪽 ¶3~¶6) / 대화재 → 희생양 → 바울(141쪽 ¶9 ~ 142쪽 첫 줄)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6	요약문 완성	계속 가르친 이유와 의무로서의 정치(138쪽 ¶4~¶6) / 떠나지 못한 이유 — 두려움 · 선의 · 봉급(139쪽 ¶6 ~ 140쪽 ¶1)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고유명사·숫자·True/False 8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연도와 나이가 촘촘한 장이다(4 BC · 20 AD · 31 AD 35세 · 37 · 39 AD 92세 · 40 · 41 AD 45세 · 49 · 50 AD 53세 · 54 AD 16세 · 55 · 59 · 62 · 64 · 65 AD). 인물도 많다(아탈루스 · 섹스티우스 · 티베리우스 · 세야누스 · 칼리굴라 · 카누스 · 클라우디우스 · 아그리피나 · 네로 · 부루스 · 갈리오 · 브리타니쿠스 · 수일리우스 · 루킬리우스 · 트라세아 · 루카누스 · 파울리나).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not directly involved ↔ directly involved, banished by Claudius ↔ by Caligula, political strategy, not Stoicism ↔ Stoicism, largely through gifts ↔ through inheritance, rushed in to save Paulina ↔ let her die). 동사와 인물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는다.

1-2. 구조도 — 「Seneca the Striver」 (132~145쪽)

전기형(명성을 갈망한 사람 → 아탈루스의 교육 → 여러 학파와 법률 수련 → 병과 이집트 → 칼리굴라 아래의 생존 → 코르시카 유배 → 네로의 스승 → 『관용론』과 조각상 → 무너지는 네로 → 부와 위선 → 물러남과 대화재 → 글쓰기 → 마지막 장면). 핵심 축은 **애씀(striving) vs 멈춤(withdrawal)**, 그리고 **쓴 것(preaching) vs 산 것(practice)**.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32 ¶1~¶4	도입	사후 명성을 하찮게 여긴 동료들과 달리 명성을 갈망 / 예수와 같은 해 출생 · 겸손 대신 키케로를 넘는 권력 의지 / 가장 널리 읽히는 스토아 = 처음부터 노린 것
132 ¶5~¶6	출신과 시대	기원전 4년 무렵 코르두바 · 대(大) 세네카의 아들 · 노바투스와 멜라(아들 루카누스) / 공화정을 겪지 못한 첫 주요 스토아 · 다섯 황제
132 ¶7~133 첫 줄	스승 아탈루스	웅변 때문에 고른 스승 / 교실을 '포위'한 아이 · '눌러앉은 사람'은 사절 · 스승과 학생의 같은 목적
133 ¶1~¶2	절제와 나아감	학문만큼 도덕 · 굴과 버섯을 끊음 · 사치는 덧없는 쾌락 / 날마다 좋은 것 하나
133 ¶3~¶4	여러 학파와 일기	섹스티우스 · 에피쿠로스 · 피타고라스(채식) · 기다려 준 아버지 / 저녁 일기 + 도덕적 성찰
133 ¶5~134 첫 줄	출세를 위한 훈련	단호하되 너그러운 자기 개선 / 철학을 좋아하지 않은 아버지 · 법 · 수사 · 비판적 사고 / 17세부터 법정
134 ¶1~¶4	병과 이집트	서기 20년 폐병(결핵일 가능성이 가장 큼) / 제멋대로인 운명 / 알렉산드리아 약 10년 · 숙부 갈레리우스 / 아탈루스의 추방 · 칼날 위의 철학자
134 ¶5~135 인용	칼리굴라 치하	31 AD 35세 귀국 · 숙부의 난파 · 세야누스 · 재무관 / 율리우스 카누스의 체스 / 병 덕분에 처형을 면함(디오 카시우스)
135 ¶1~¶3	상실과 추방	아버지(39 AD · 92세) · 결혼(40 AD) · 첫아들 / 20일 뒤 클라우디우스의 추방 · 이유는 불분명 / 41 AD 45세 코르시카 8년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35 ¶4 ~ 136 ¶2	분노와 죽음의 글	형제에게 바친 『분노에 관하여』 · 클레안테스 이래의 자기 대화 / 날마다 삶의 장부 / 죽음의 대부분은 이미 지나갔다
136 ¶3~¶5+인용	운명의 시	희곡 속 운명의 시(클로토) / 부와 스승을 주고 건강과 경력을 빼앗은 운명 / 50 AD 다시 회오리 속으로
136 ¶6 ~ 137 ¶2	네로의 스승	아그리피나 · 12세 네로 · 49 AD 결혼 · 소환 / 53세 궁정의 중심 / 철학이 아닌 정치 전략 / 에밀리 윌슨 · 스스로 실현되는 예언
137 ¶3~¶5	파우스트의 거래	봉사의 의무 · 섬을 벗어나려는 마음 / 교육에 무관심한 네로 · 대안은 코르시카 / 54 AD 클라우디우스의 죽음 · 16세 황제
137 ¶6 ~ 138 ¶3	『관용론』과 조각상	방향 바로잡기 · 그리스어에 없던 관용(캐스터) · 권력으로 무엇을 하는가 / 바론의 조각상(1904): 열린 세네카 · 뚱한 네로
138 ¶4~¶7	가르친 이유	이유 넷(희망 · 걸린 것이 큼 · 자기 일 · 권력 곁의 기회) /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 정치는 의무(제논 vs 에피쿠로스)
139 ¶1~¶4	무너지는 네로	부루스와의 좋은 몇 해 · 55 AD 갈리오 · 이듬해 세네카 집정관 / 브리타니쿠스 · 59 AD 어머니 살해 / '너무 많은 카이사르' · 전차와 무대
139 ¶5 ~ 141 ¶3	떠나지 못한 이유	두려움 · 선의 · 봉급 / 3억 세스테르티우스 · 탁자 500개 · 소크라테스와의 두 얼굴 흉상 / 수일리우스 · 『행복한 삶에 관하여』 / 4천만 대출과 반란 / 멈춰 묻지 않음
141 ¶4 ~ 142 ¶6	물러남과 대화재	62 AD 은퇴 시도 · 재산 반납 제안 / 64 AD 대화재 · 기독교인 · 바울 / '폭군의 스승' · 공자 / 『여가에 관하여』 · 후세를 위한 글
142 ¶7 ~ 145 ¶3	마지막 글과 죽음	『도덕 서한』 · 3년의 글쓰기 · 『티에스테스』 / 첫 독살 실패 · 65 AD 음모 / 본보기라는 유산 · 파울리나 · 독약 · 증기탕 · 장례 없는 매장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사후 명성	하찮다(많은 동료 스토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 연기함(세네카) — 그리고 실제로 얻음
배우는 태도	눌러앉아 듣고 받아 적어 외움(squatters)	토론하며 스승과 함께 나아감(아탈루스의 교실)
아버지가 원한 교육	철학 · 도덕 수련	법 · 수사 · 비판적 사고 — 정치 경력을 위한 훈련
통제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병 · 추방(어쩔 수 없음)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고름(쓰고 읽고 몸을 다짐)
죽음	앞날에 놓인 것	대부분 이미 지나간 것 — 날마다 죽어 감
황제를 대하는 길	정면으로 맞서 무너뜨림(키케로의 희망)	최악의 성향을 누그러뜨리고 자율을 지킴(세네카의 희망 · 윌슨)
아그리피나가 원한 수업	스토아 철학	정치 전략 · 법과 웅변(철학은 몰래 끼워 넣음)
권력자의 덕목	자제 · 온화(앞선 철학자들)	관용(clemency) —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정치 참여	위급할 때만(에피쿠로스)	막는 것이 없는 한(제논) — 의무
떠나지 못한 이유	두려움 · 네로에게서도 선함을 찾음	봉급(자기 이익)이 눈을 가림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철학자의 부	피 묻지 않은 부라면 괜찮다(『행복한 삶에 관하여』)	3억 세스테르티우스 · 브리타니아 대출의 피
봉사의 기준	어떤 나라든 계속 섬김(약 15년의 봉사)	도가 없는 나라의 봉록은 부끄럽다(공자)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Seneca	B. 기원전 4년 무렵 – D. 65 AD · 출신 코르두바(스페인, 오늘날 코르도바) · 발음 SEH-ne-ka ·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소 세네카) · 예수와 같은 해 출생(원서 표기)
가족	아버지 = 대(大) 세네카(부유하고 학식 있는 작가 · 철학을 좋아하지 않음) · 형제 노바투스(총독이 됨) · 멜라(아들 루카누스가 집안의 글 전통을 이음)
다섯 황제	아우구스투스 치세 말에 태어나 첫 다섯 황제를 겪음 · 공화정 로마를 직접 겪지 못한 첫 주요 스토아 · 카토가 누린 리베르타스를 맛보지 못함
Attalus	웅변으로 이름난 스토아 스승(아버지가 고름) · 절제 · 굴과 버섯을 끊게 함 · 날마다 좋은 것 하나 / 훗날 티베리우스가 재산 몰수 · 추방 → 도랑을 파며 생계
Sextius / 17세	섹스티우스에게서 잠들기 전 저녁 일기 습관(+ 아탈루스의 도덕적 성찰) · 에피쿠로스 탐독 · 피타고라스식 채식(한동안) / 로마의 젊은 변호인은 17세부터 법정에 섬
20 AD / Egypt	폐병(결핵일 가능성이 가장 큼)의 악화 · 알렉산드리아에서 약 **10년** 요양 · 숙부 가이우스 갈레리우스 = 이집트 총독
31 AD / 35세	로마 귀국 · 귀국길에 숙부 난파 사망 · 세야누스의 몰락 · 집안 인맥으로 재무관(35 · 45세는 원서 표기 — 기원전 4년생이면 0년이 없어 34 · 44세 · 50 AD의 53세는 계산과 맞음)
Caligula / Canus	티베리우스 치세 37 AD까지 · 칼리굴라 치세(더 짧지만 똑같이 폭력적) · 율리우스 카누스의 체스("한 수 앞섰다") = 『마음의 평정에 관하여』 / 디오 카시우스: 변론을 잘해 처형 위기 → 폐병으로 곧 죽으리라는 말에 풀려남
39 · 40 · 41 AD	39 AD 아버지 사망(92세) · 40 AD 결혼 · 40~41 AD 첫아들 사망 · 20일 뒤 클라우디우스가 추방 · 41 AD 45세 코르시카(간통 혐의 · 진짜 이유는 확실하지 않음)
Corsica (8년)	『폴리비우스에게 보내는 위로』 · 『헬비아에게 보내는 위로』 · 『분노에 관하여(De Ira)』(형제에게 헌정) / 곡물 공급 감독직을 잃은 장인을 위로
Agrippina	아우구스투스의 증손녀 · 49 AD 클라우디우스와 결혼 · 네로 입양 → 세네카를 코르시카에서 소환해 열두 살 네로의 스승으로 · 세네카 **53세**
Emily Wilson	세네카의 번역가 · 전기 작가 — 키케로와 달리 세네카는 황제에게 정면으로 맞설 희망이 없었음 / 그의 글 절반 넘게가 사라졌다고 추정
54 AD / 16세	궁정 고용 약 5년째 · 아그리피나가 독버섯으로 클라우디우스를 죽게 함(원서 서술) · 네로 16세 황제 · 세네카가 연설문 작성
De Clementia	새 황제에게 준 첫 작품 가운데 하나 · '좋은 왕'의 길 · 캐스터: 그리스어에는 '관용'이라는 낱말이 없었음 · 권력으로 무엇을 하는가
Barrón (1904)	스페인 조각가 에두아르도 바론의 세네카와 네로 조각상 · 약 18세기 뒤의 장면 · 열린 몸짓의 세네카 vs 두건 · 보석 · 뚱한 표정의 네로
Burrus / 55 AD	아그리피나가 함께 고른 군 지휘관 부루스와 잘 다스린 몇 해 · 55 AD 형제 갈리오 집정관 · 이듬해 세네카 집정관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59 AD	브리타니쿠스 독살 → 어머니를 몰아내고 여러 번 독살 실패(배 사고 계획은 '한 기록') → 59 AD 살해 ·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남자 모두 살해 / 아리우스의 '너무 많은 카이사르'
300,000,000	몇 해 만에 주로 네로의 선물로 약 **3억** 세스테르티우스 · 분명 당대 가장 부유한 스토아(어쩌면 역사상 가장 부유한 스토아) · 상아 다리 시트러스 나무 탁자 약 **500**개(한 자료)
흉상 / Suillius	실제 모습 = 3세기 세네카와 소크라테스의 두 얼굴 흉상(오른쪽 어깨가 드러남 · 뚱뚱해진 모습) / P. 수일리우스: 킨키우스 법 부활의 배후로 의심 · 위선 공격 · 훗날 유죄 · 추방
40,000,000 / Britain	높은 이자로 브리타니아 식민지에 약 **4천만** 세스테르티우스 대출 → 폭력적 반란 · 로마 군단이 진압
62 · 64 AD	62 AD 물러나려 함(재산을 모두 가져가 달라 · 원칙에 따른 사임의 증거는 없음) · 64 AD 대화재(도시의 3분의 2 넘게 · 6일은 소문) · 희생양 = 기독교인 · 타르소스의 사울(바울)
Confucius / 15년	군주의 스승 · 도가 있으면 봉록을 받고 도가 없으면 부끄럽다 / 세네카는 네로를 약 **15년** 섬김 · 은퇴 뒤 『여가에 관하여』
Lucilius / 62~65 AD	철학 편지 = 『도덕 서한』(지금도 해마다 수천 부) · 키케로처럼 3년 동안 글을 마무리 · 『티에스테스』(미케네 왕국을 다투는 두 형제)
65 AD	트라세아(원서 표기) · 조카 루카누스 등의 음모(세네카는 직접 가담하지 않음) · 자살 명령 · 유언장 거절 · 파울리나(경비병이 살림) · 독약 → 증기탕 · 장례 없는 매장(타키투스)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Lives of the Stoics · 「Seneca the Striver」 (원서 PDF 132~145쪽) · 12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18-1 명성을 갈망한 스토아, 교실을 포위한 아이 132쪽 ¶1 ~ 133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132쪽 ¶1 ~ 133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첫 문장	It would please Lucius Annaeus Seneca very much to know that	가주어 it + to부정사 / would(가정적 추측)
◆	¶1 둘째 문장	who wrote of the worthlessness of posthumous fame	요지 후보: 동료 스토아와의 대비
▲	¶1 둘째 문장	Seneca craved it, worked for it, performed for it	동사 병렬 · it = posthumous fame
▲	¶2 첫 문장	Unlike Jesus, ..., there was little meekness or humility in Seneca	비교 대상이 주어 자리에 없는 Unlike
▲	¶2 둘째 문장	a will to power that not only rivaled but surpassed Cicero's	not only A but B / 소유격 단독
▲	¶3 첫 문장	Contemporaries may have believed	may have p.p.(과거 추측)
★	¶3 셋째 문장	has not only eclipsed Cicero's, but ... likely all the other Stoics' combined	요지 1순위 · likely(추측)
◆	¶4	Just as he aimed all along.	밑줄 의미: 처음부터 노린 명성
★	¶5 첫 문장	Born around 4 BC in Corduba, Spain	숫자·지명 — 서답형 후보
▲	¶5 둘째 문장	So were his brothers	So + 동사 + 주어 도치
★	¶5 둘째 문장	Novatus, who became a governor, and Mela, whose son, Lucan	인물 — 내용 일치 후보
★	¶6 둘째 문장	the reigns of the first five emperors	숫자 — 내용 일치 후보
▲	¶6 셋째 문장	Never did he breathe in the freedom of Roman libertas	부정어 Never 도치
◆	¶7 셋째 문장	cheerfully "laid siege" to the classroom	밑줄 의미: 누구보다 열심히 배움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 넷째 문장	Attalus didn't tolerate "squatters,"	밑줄 의미: 눌러앉아 듣기만 하는 학생
▲	133쪽 첫 줄 둘째 문장	an ambition in the one case to promote, and the other to progress	the one ~ the other 대구 + 생략

내용

우리가 지금도 자신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안다면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는 무척 기뻐할 것이다. 죽은 뒤의 명성이 하찮다고 쓴 많은 동료 스토아와 달리, 세네카는 그 명성을 갈망했고 그것을 위해 일하고 연기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카토의 죽음에 견줄 만한 연극 같은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랬다. 같은 해에 로마 제국의 또 다른 먼 속주에서 태어난 예수와 달리, 세네카에게는 온유함도 겸손함도 별로 없었다. 대신 야망과 재능, 그리고 키케로에 견줄 뿐 아니라 그를 넘어서는 권력 의지가 있었다. 동시대 사람들은 키케로가 더 나은 작가이자 연설가라고 믿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더 널리 읽히는 사람은 세네카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평정과 의미와 행복과 지혜를 바라는 한 인간의 분투를 그보다 설득력 있고 공감 가게 쓴 사람은 없다. 그가 긴 생애 동안 쓴 에세이와 편지의 독자는 키케로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길게 보면 아마 다른 모든 스토아의 독자를 합친 것보다도 많을 것이다. 그가 처음부터 노린 대로다. 세네카는 기원전 4년 무렵 스페인의 코르두바(오늘날 코르도바)에서, 역사에 대(大) 세네카로 알려진 부유하고 학식 있는 작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소(小) 세네카는 태어날 때부터 큰일을 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형제들도 그랬다. 노바투스는 총독이 되었고, 멜라의 아들 루카누스는 집안의 글쓰기 전통을 이었다. 아우구스투스 치세 말에 태어난 세네카는 공화정 로마를 직접 겪지 못한 첫 주요 스토아였다. 그는 제국만 알았고, 실제로 첫 다섯 황제의 치세를 모두 살아 내게 된다. 카토와 그 선배들이 누린 로마의 자유(리베르타스)를 그는 한 번도 들이마시지 못했다. 대신 평생 점점 더 독재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권력의 격동하는 궁정 속에서 길을 찾으려 애썼다. 그래도 어린 시절은 앞선 철학자들과 거의 같았다. 아버지는 주로 웅변으로 이름난 평판 때문에 스토아 아탈루스를 아들의 스승으로 골랐다. 올바른 정신뿐 아니라 그 생각을 로마 생활에서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정신을 길러 주고 싶었던 것이다. 아들은 열정적으로 배웠다. 세네카 자신의 말로는, 어린 그는 교실을 즐겁게 '포위'했고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 떠났다. 아탈루스는 빈둥거리며 듣기만 하거나 기껏해야 강의를 외워 되풀이하려고 받아 적는 '눌러앉은 사람'을 참지 않았다. 배움은 토론과 논의가 오가는, 스승과 학생이 함께하는 능동적인 과정이었다. 아탈루스는 스승과 학생이 같은 목적을 품어야 한다고, 한쪽은 이끌어 주려는, 다른 쪽은 나아가려는 야망을 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법

- **It would please Lucius Annaeus Seneca very much to know that we are still talking about him today.** : 가주어 it – 진주어 to know ~. would = '알게 된다면' 하는 가정이 담긴 추측(그는 이미 죽어 알 수 없다). that절 = know의 목적어.
- **Unlike many of his fellow Stoics, who wrote of the worthlessness of posthumous fame, Seneca craved it, worked for it, performed for it** : 계속적 who의 선행사 = many of his fellow Stoics. 동사 셋(craved · worked for · performed for)이 접속사 없이 병렬되어 점점 세진다. it = posthumous fame.
- **Unlike Jesus, who was born the same year as Seneca ..., there was little meekness or humility in Seneca.** : Unlike Jesus가 견주는 대상은 Seneca인데 주절은 there was로 시작한다 — 비교 대상이 주어 자리에 오지 않은 구조. little = 거의 없는(부정의 뜻).
- **a will to power that not only rivaled but surpassed Cicero's** : not only A but (also) B: 동사 rivaled와 surpassed가 목적어 Cicero's를 함께 받는다. Cicero's = Cicero's will to power(소유격 단독).
- **The readership of the essays and letters Seneca wrote over his long life has not only eclipsed Cicero's, but in the long run likely all the other Stoics' combined as well.** : 주어 The readership(단수)

→ has eclipsed. letters 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likely = 아마(추측 부사). all the other Stoics' (readership) combined = 다른 모든 스토아의 독자를 합친 것.

- **Seneca the Younger was destined for great things from birth. So were his brothers** : be destined for = ~하도록 운명 지어지다. So + be동사 + 주어 = …도 그렇다(도치). So his brothers were로 쓰면 '형제들은 정말 그랬다'는 뜻이 되어 의미가 달라진다.
- **Never did he breathe in the freedom of Roman libertas that Cato and his predecessors had all enjoyed.** : 부정어 Never가 문두 → did + 주어 + 원형(breathe) 도치. had enjoyed = 대과거(세네카 이전). all은 주어 Cato and his predecessors와 동격.
- **the kind of students who lounge around and listen, or at best take notes so as to memorize and repeat what they heard** : who 뒤 동사 lounge · listen · take가 병렬. so as to V = ~하기 위해(목적). what =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osthumous	사후의	after-death	—
crave	갈망하다	long for	disdain
meekness	온유함	mildness	aggressiveness
humility	겸손	modesty	arrogance
surpass	넘어서다	exceed	fall behind
cogently	설득력 있게	convincingly	unconvincingly
eclipse (v.)	능가하다, 무색하게 하다	overshadow	—
learned (adj.)	학식 있는	erudite	ignorant
autocratic	독재적인	dictatorial	democratic
maneuver (v.)	헤쳐 나가다, 책략을 쓰다	navigate	—
imbue	(생각을) 불어넣다	instill	—
gusto	열정	enthusiasm	apathy
lounge around	빈둥거리다	idle	work hard

내용 일치 동료들과 달리 사후 명성을 갈망 · 예수와 같은 해 출생(원서 표기) · 키케로를 넘는 권력 의지 · 동시대인은 키케로가 낫다고 '믿었을지도' · 오늘날 더 널리 읽힘 · 출생 = 기원전 4년 무렵 코르두바 · 아버지 = 대 세네카 · 노바투스(총독) · 멜라(아들 루카누스) · 첫 다섯 황제 · 스승 아탈루스 = 주로 웅변 때문에 고름. **밑줄 의미** Just as he aimed all along = 가장 널리 읽히는 것이 처음부터 그가 노린 결과 / "laid siege" to the classroom = 교실을 포위하듯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 떠남 / "squatters" = 눌러앉아 듣고 받아 적기만 하는 학생.

> **한 줄 요약** 죽은 뒤의 명성을 갈망한 세네카는 공화정을 모르는 제국의 아이로 태어나, 웅변으로 이름난 스승 아탈루스의 교실을 누구보다 열심히 '포위'했다.

18-2 날마다 좋은 것 하나, 저녁의 일기 133쪽 ¶1 ~ 134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133쪽 ¶1 ~ 134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첫 문장	Attalus had more in mind than just good marks	have A in mind + more ~ than
▲	¶1 둘째 문장	His instruction was as much moral as it was academic	as much A as B
★	¶1 셋째 문장	that core Stoic virtue of temperance	빈칸·어휘 후보
▲	¶1 셋째 문장	instilling in Seneca lifelong habits …, causing him to give up oysters and mushrooms	분사구문 둘 + cause + O + to V
●	¶1 넷째 문장	fleeting pleasures that did not contribute to lasting happiness	반전 후보 → fleeting ↔ lasting
▲	¶1 다섯째 문장	"You must crave nothing … if you would vie with Jupiter"	if절의 would(의지)
●	¶1 여섯째 문장	Learn to be content with little	반전 후보 → content ↔ discontented
★	¶2 둘째 문장	take away with him some one good thing every day	빈칸·요지 후보
▲	¶2 둘째 문장	he should return home a sounder man, or on the way to becoming sounder	주격 보어 + to + 동명사
★	¶3 첫 문장	the teachings of a philosopher named Sextius	인물 — 서답형 후보
◆	¶3 넷째 문장	a credit to Seneca's father, and a reminder to fathers since	주장 후보: 기다려 준 아버지
▲	¶3 다섯째 문장	forcing them to curtail their curiosity is expedient but often costly	동명사 주어 + 단수 동사
▲	¶4 첫 문장	What Seneca was doing was developing	what절 주어 + 동명사 보어
◆	¶4 셋째 문장	every day I plead my cause before the bar of self	밑줄 의미: 스스로를 법정에 세움
▲	¶5 둘째 문장	his father, no fan of philosophy, was paying them to train his son	동격 삽입 + 과거진행
★	134쪽 첫 줄	as early as age seventeen	숫자 — 내용 일치 후보

내용

아탈루스가 말한 '나아감'은 좋은 성적이나 말 잘하는 겉모습 이상이었다. 그의 가르침은 학문만큼이나 도덕에 관한 것이어서,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어린 제자에게 '죄와 잘못과 삶의 악'에 관해 길게 이야기했다. 그는 스토아의 핵심 덕목인 절제를 옹호하여, 세네카에게 먹고 마시는 데서 평생 가는 절제의 습관을 심어 주었고, 로마의 별미인 굴과 버섯을 끊게 했다. 허세와 사치는 오래가는 행복에 보탬이 되지 않는 덧없는 쾌락이라며 비웃었다. 그는 유피테르와 겨루려면 아무것도 갈망하지 말라고, 유피테르는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적은 것에 만족하며 용기와 큰 영혼으로 외치는 법을 배우라고 했다. 그러나 세네카가 아탈루스에게서 배운 가장 강력한 교훈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나아지려는 열망이었다. 철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날마다 좋은 것 하나를 얻어 가는 것, 집에 돌아갈 때 더 건강한 사람이 되어 있거나 적어도 그리로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었다. 그 뒤 수많은 젊은이가 그렇듯 세네카도 여러 학파와 사상을 시험했다. 스토아와 섹스티우스라는 철학자의 가르침에서 가치를 찾았고, 경쟁 학파라고들 하는 에피쿠로스의 글을 읽고 따졌으며,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을 탐구하다 한동안 채식을 하기도 했다. 아버지가 이 시기를 참을성 있게 받아 주고 아들에게 폭넓은 공부를 권한 것은 그의 공이며, 그 뒤의 아버지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조숙한 젊은이가 자신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들의 호기심을 억누르는 것은 당장은 편하지만 대가가 큰 경우가 많다. 세네카가 한 일은 훗날 자기만의 수련법을 만들게 해 줄 폭넓은 관심과 경험을 쌓는 것이었다. 예컨대 섹스티우스에게서는 잠들기 전 저녁에 몇 분 동안 일기를 쓰는 습관의 이로움을 알게 되었고, 여기에 아탈루스가 가르친 깊이 파고드는 도덕적 성찰을 더했다. 훗날 그는 날마다 자기라는 법정 앞에서 자기 사건을 변론한다고 썼다. 불이 꺼지고 그의 습관을 오래 알아 온 아내가 조용해지면 하루 전체를 훑으며 행동과 말을 되짚고, 아무것도 숨기지도 빠뜨리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데 어느 실수 앞에서든 왜 움츠러들겠느냐고 했다. 단호하되 너그러운("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지만 이번에는 용서한다.") 이 진지한 자기 개선의 태도를 스승들은 사랑했고 북돋웠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왜 고용되었는지도 알았다. 철학을 좋아하지 않은 아버지는 아들을 활발하고 야심 찬 정치 경력에 대비시키라고 돈을 내고 있었다. 그래서 이 도덕 훈련은 법과 수사와 비판적 사고의 엄격한 교육과 균형을 이루었다. 로마에서는 유망한 젊은 변호인이 열일곱 살부터 법정에 설 수 있었는데, 세네카가 법이 허용하자마자 준비되어 있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어법

- **By progress, Attalus had more in mind than just good marks and the appearance of being articulate.** : have A in mind = A를 염두에 두다. more ~ than just ... = ...이상의 것. 전치사 of 뒤 동명사 being.
- **His instruction was as much moral as it was academic** : as much A as B = B만큼이나 A다(A를 강조). 원급 비교의 둘째 as 뒤에 절(it was academic)이 왔다.
- **instilling in Seneca lifelong habits of moderation in diet and drink, causing him to give up oysters and mushrooms, two Roman delicacies** : 분사구문 둘이 이어진다. instill A in B에서 목적어 A가 길어 in Seneca 뒤로 갔다. cause + O + to V. two Roman delicacies = oysters and mushrooms의 동격.
- **"You must crave nothing," Attalus told Seneca, "if you would vie with Jupiter; for Jupiter craves nothing."** : if절의 would = 주어의 의지(~하고자 한다면). 세미콜론 뒤 for = 왜냐하면(이유를 덧붙이는 접속사).
- **The purpose of studying philosophy ... was to "take away with him some one good thing every day: he should return home a sounder man, or on the way to becoming sounder."** : 주어 The purpose(단수) → was. 보어 to부정사(to take away). a sounder man =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보어(더 건강한 사람이 되어). on the way to + 동명사(to는 전치사).
- **It can take a while for precocious young people to find themselves, and forcing them to curtail their curiosity is expedient but often costly.** : It takes + 시간 + for A to V = A가 ~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둘째 절의 주어는 동명사구 forcing ~ → 단수 is. force + O + to V.

- **What Seneca was doing was developing a range of interests and experiences that would later enable him to create his own unique practices.** : What절이 주어 → 단수 was. 보어 developing = 동명사(진행형이 아니다). enable + O + to V.
- **"For why should I shrink from any of my mistakes, when I may commune thus with myself?"** : 수사의문문(움츠러들 이유가 없다는 뜻). when = ~할 수 있는데(근거를 담은 접속사). commune with = ~와 마음을 나누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rticulate (adj.)	말을 잘하는	eloquent	inarticulate
temperance	절제	self-restraint	indulgence
moderation	절제, 중용	restraint	excess
pomp	허세, 화려함	ostentation	simplicity
fleeting	덧없는	transient	lasting
vie with	~와 겨루다	compete with	—
content (adj.)	만족하는	satisfied	discontented
indulge	(마음껏) 받아 주다	humor	deny
precocious	조숙한	advanced	—
curtail	억제하다, 줄이다	restrict	expand
expedient (adj.)	당장 편리한	convenient	inconvenient
probing	깊이 파고드는	searching	superficial
rigorous	엄격한	strict	lax

내용 일치 아탈루스 = 학문만큼 도덕 · 절제 · 굴과 버섯을 끊게 함 · 사치는 덧없는 쾌락 · 날마다 좋은 것 하나 / 여러 학파 = 스토아 · 섹스티우스 · 에피쿠로스('경쟁 학파라고들 하는') · 피타고라스(한동안 채식) · 아버지가 참고 받아 줌 / 저녁 일기 = 섹스티우스에게서 · 아내도 그 습관을 앎 / 아버지는 철학을 좋아하지 않음 · 법정 = 17세부터. **밑줄 의미** some one good thing every day = 철학은 날마다 실제로 조금씩 나아지는 것 / plead my cause before the bar of self = 하루를 자기 법정에 세워 스스로 심판함 / no fan of philosophy = 아버지가 원한 것은 철학이 아니라 출세.

> **한 줄 요약** 아탈루스에게 절제와 날마다 나아지는 법을 배운 세네카는 여러 학파와 저녁 일기로 자기만의 수련을 쌓았지만, 아버지가 원한 것은 출세를 위한 법률 훈련이었다.

18-3 제멋대로인 운명, 칼날 위의 철학자 134쪽 ¶1 ~ 135쪽 인용

원문 위치 원서 134쪽 ¶1 ~ 135쪽 인용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첫 문장	only in his early twenties	나이 — 내용 일치 후보
★	¶1 둘째 문장	a lung condition, most likely tuberculosis, … in 20 AD … Egypt	연도·지명 · most likely(추측)
◆	¶2 첫 문장	Life takes our plans and dashes them to pieces.	요지 후보
▲	¶2 둘째 문장	fortune's habit of behaving just as she pleases	지칭: she = fortune(의인화)
▲	¶2 셋째 문장	Just because we have worked hard, … has no bearing on whether	Just because절 주어 + has no bearing on
★	¶3 둘째 문장	something like ten years in Alexandria	숫자·지명 — 서답형 후보
▲	¶3 다섯째 문장	we can imagine it was here that Seneca was given his first real education	추측 + 강조구문(장소)
★	¶4 둘째 문장	Attalus had somehow run afoul of Tiberius	인물 — 내용 일치 후보
◆	¶4 넷째 문장	To be a philosopher in imperial Rome was to walk a razor's edge	밑줄 의미 1순위
★	¶5 첫 문장	return to Rome at thirty-five in 31 AD	숫자 — 서답형 후보
▲	¶5 셋째 문장	arrived in time to see Sejanus, … condemned by the Senate and torn to pieces	see + O + p.p.(수동 관계)
▲	¶5 다섯째 문장	serving as quaestor by virtue of his family connections	분사구문 + by virtue of
▲	¶6 첫 문장	Tiberius's reign, which lasted until 37 AD, … and through Caligula's	계속적 which + 소유격 단독
◆	¶6 넷째 문장	"You will testify that I was one piece ahead."	밑줄 의미: 죽음 앞의 농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 첫 문장	He would have easily seen himself in Canus's shoes, for he too walked	would have p.p.(추측) + for
★	135쪽 인용 둘째 문장	consumption in an advanced stage and would die before a great while	처형을 면한 이유 — 내용 일치 후보

내용

그러나 이 유망한 경력을 시작한 지 몇 해 되지 않은 스무 살 초반, 건강이 모든 것을 끝낼 뻔했다. 그는 늘 폐병, 십중팔구 결핵에 시달렸는데, 서기 20년 어떤 악화가 일어나 회복을 위해 이집트로 긴 여행을 떠나야 했다. 삶은 우리의 계획을 집어 들어 산산조각 낸다. 세네카가 훗날 썼듯, 제멋대로 구는 운명의 습관을 결코 얕보아서는 안 된다. 열심히 일했다는 것, 가능성을 보이고 성공으로 가는 길이 분명하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 세네카도 분명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10년 가까이 요양하게 된다. 그 일을 통제할 수는 없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10년을 쓰고 읽고 몸을 다지며 보냈다. 숙부 가이우스 갈레리우스가 이집트 총독이었으니, 세네카가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처음 제대로 배운 곳이 여기였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다. 그가 돌아가기를 애타게 바라며 계획을 세우는 모습도 상상할 수 있다. 떠나 있는 동안 그는 자기 삶의 궤적을 예고하는 소식을 들었다. 아탈루스가 어찌 된 일인지 티베리우스 황제의 눈 밖에 나 재산을 몰수당하고 로마에서 추방된 것이다. 사랑하던 스승은 남은 생을 유배지에서 도랑을 파며 근근이 살았다. 제국의 로마에서 철학자로 산다는 것은 칼날 위를 걷는 일이고, 운명은 변덕스럽고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임을 세네카는 배우고 있었다. 서기 31년 서른다섯 살에 로마로 돌아온 일은 이 뒤쪽 교훈을 더 굳혀 줄 뿐이었다. 귀국길에 숙부가 난파로 죽었다. 그는 또, 한때 티베리우스가 가장 믿던 군 지휘관이자 조언자였던 세야누스가 원로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거리에서 군중에게 갈가리 찢기는 것을 보게 되었다. 편집증과 폭력과 정치적 혼란의 시대였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세네카는 집안 인맥 덕에 재무관으로 첫 공직에 올랐다. 그는 서기 37년까지 이어진 티베리우스 치세와, 훨씬 짧지만 똑같이 폭력적인 칼리굴라 치세 내내 몸을 낮추었다. 그는 훗날 『마음의 평정에 관하여』에서, 칼리굴라의 눈 밖에 나 처형 명령을 받은 존경하는 스토아 철학자 율리우스 카누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카누스는 사형 집행인을 기다리며 친구와 체스를 두었고, 경비병이 데리러 오자 자신이 한 수 앞섰다는 것을 증언해 달라고 농담했다. 세네카는 이 재담의 철학적 탁월함뿐 아니라, 이 무서운 시대에 그것이 주인에게 안겨 준 명성에도 주목했다. 그도 그토록 불안정한 왕 밑에서 삶과 죽음의 칼날 위를 걸었으니 카누스의 처지에서 자신을 쉽게 보았을 것이다. 디오 카시우스에 따르면, 세네카는 무슨 죄목인지 알 수 없지만 처형당할 뻔했다가 오직 나쁜 건강 덕분에 살았다. 디오는 당대의 모든 로마인보다 지혜로웠던 세네카가 잘못한 것도 그렇게 보인 것도 없이 그저 황제가 있는 자리에서 원로원 변론을 잘했다는 이유로 죽을 뻔했으며, 칼리굴라가 처형을 명했다가 세네카가 폐병이 깊어 곧 죽을 것이라는 한 여인의 말을 믿고 풀어 주었다고 쓴다.

어법

- **He had always struggled with a lung condition, most likely tuberculosis, but some sort of flare-up in 20 AD forced him to take an extended trip to Egypt to recover.** : had struggled = 대과거(20년 이전부터 줄곧). most likely tuberculosis = a lung condition의 동격 — most likely는 저자의 추측(확진이 아니다). force + O + to V. to recover = 목적.
- **we should never underestimate fortune's habit of behaving just as she pleases** : she = fortune(운명을 여신처럼 의인화). habit of + 동명사. just as = 꼭 ~대로.
- **Just because we have worked hard, just because we are showing promise and our path toward success is clear has no bearing on whether we will get what we want.** : Just because절이 주어 자리에 온 구어체 구문 → 단수 동사 has. have no bearing on = ~와 관계가 없다. whether절 = 전치사 on의 목적어, what = 관계대명사.

- **we can imagine it was here that Seneca was given his first real education in how power operated** : it was here that ~ = 장소 부사 here를 강조하는 강조구문. we can imagine = 저자의 상상(기록된 사실이 아님). give + 사람 + 사물의 수동(Seneca was given ~). in + 간접의문문(how S V).
- **Attalus had somehow run afoul of Tiberius, the emperor, who confiscated his property and banished him from Rome.** : had run afoul of = 대과거(소식을 듣기 전). run afoul of = ~와 충돌하다, ~의 눈밖에 나다. somehow = 어떤 경위인지 모르지만. 계속적 who = Tiberius.
- **To be a philosopher in imperial Rome was to walk a razor's edge, Seneca was learning, and it was to accept that the fates were fickle** : 주어 to부정사 = 보어 to부정사(A하는 것은 B하는 것이다). Seneca was learning = 삽입절. 둘째 절의 it = to be a philosopher ~.
- **He also arrived in time to see Sejanus, ... condemned by the Senate and torn to pieces by the mob in the streets.** : in time to V = 때맞춰 ~하다. see + O + p.p.: 세야누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찢기는 수동 관계라 condemned · torn. condemning으로 바꾸면 세야누스가 남을 단죄하는 뜻이 되어 사실이 뒤집힌다.
- **He would have easily seen himself in Canus's shoes, for he too walked the razor's edge of life and death under such an unstable king.** : would have p.p. = ~했을 것이다(과거에 대한 저자의 추측). in one's shoes = ~의 처지에서. 접속사 for = 왜냐하면(근거).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tuberculosis	결핵	TB	—
flare-up	(병의) 악화, 재발	outbreak	remission
dash (v.)	산산이 부수다, 꺾다	shatter	—
convalescence	요양, 회복기	recovery	relapse
prefect	총독, 장관	governor	—
pine for	애타게 그리다	long for	—
foreshadow	예고하다	presage	—
confiscate	몰수하다	seize	return
fickle	변덕스러운	capricious	constant
maelstrom	소용돌이, 대혼란	turmoil	calm
by virtue of	~덕분에	because of	—
quip	재담	witticism	—
consumption	폐병(결핵)	tuberculosis	—

내용 일치 20대 초 · 서기 20년 폐병(결핵일 '가능성이 가장 큼') · 이집트(알렉산드리아) 약 10년 요양 · 숙부 갈레리우스 = 이집트 총독 · 아탈루스 = 티베리우스가 재산 몰수 · 추방, 도랑을 파며 생계 · 31 AD 35세 귀국 · 숙부 난파 · 세야누스 · 재무관(집안 인맥) · 티베리우스 치세 37 AD까지 · 율리우스 카누스 = 『마음의 평정에 관하여』 · 처형을 면한 이유 = 병(디오 카시우스, 죄목은 모름). **밑줄 의미** walk a razor's edge = 언제 베일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처지 / "one piece ahead" = 죽음 앞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은 농담 / Seneca certainly wouldn't = 세네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뜻.

> **한 줄 요약** 병으로 이집트에서 10년을 보내고 스승의 추방까지 지켜본 세네카는 제국의 철학자가 칼날 위를 걷는다는 것을 배웠고, 칼리굴라 밑에서는 병 덕분에 겨우 살아남았다.

18-4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 코르시카에서 쓴 죽음 135쪽 ¶1 ~ 136쪽 ¶2

원문 위치 원서 135쪽 ¶1 ~ 136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35쪽 ¶1 첫 문장	out of the frying pan and into the fire	밑줄 의미: 갈수록 나빠짐
★	135쪽 ¶1 둘째 문장	in 39 AD at ninety-two years of age ... (40 AD) ... (40–41 AD)	숫자 — 내용 일치 1순위
★	135쪽 ¶1 셋째 문장	twenty days after burying his son, ... banished from Rome by Claudius	숫자·인물 — 서답형 후보
▲	135쪽 ¶2 넷째 문장	Did Seneca, in his grief, end up having an affair with Julia Livilla	end up -ing · 의문문(단정 아님)
▲	135쪽 ¶2 다섯째 문장	The record is murky, and, ..., beset with rumors	생략(is) + 과거분사 보어
★	135쪽 ¶2 여섯째 문장	in 41 AD, at age forty-five, ... the distant island of Corsica	숫자·지명 — 서답형 1순위
★	135쪽 ¶3 첫 문장	eight years ... Consolation to Polybius, Consolation to Helvia, and On Anger	숫자·책 — 내용 일치 후보
▲	135쪽 ¶3 둘째 문장	the man who had not long before been writing consolations ... needed some consoling himself	과거완료 진행 + need -ing
▲	135쪽 ¶4 첫 문장	rather than give in to that rage, he channeled	rather than + 원형
★	135쪽 ¶4 첫 문장	De Ira (or On Anger), which he dedicated to his brother	서답형 후보
▲	135쪽 ¶4 마지막 문장	This kind of self-talk dates back in Stoicism to Cleanthes	date back to
▲	135쪽 ¶5 둘째 문장	he could not help but constantly think and write	cannot help but + 원형
▲	135쪽 ¶5 셋째 문장	as if we'd come to the very end of life	as if + 과거완료
◆	135쪽 ¶5 마지막 문장	the balance-sheet of your own life than that of the grain market	밑줄 의미 · 지칭: that = the balance-sheet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36쪽 ¶1 셋째 문장	Most of death is already gone.	빈칸 1순위
▲	136쪽 ¶2 첫 문장	It must have been a particularly painful insight	must have p.p.(강한 추측)

내용

그야말로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 뛰어든 격이었다. 2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세네카는 아버지를 잃고(서기 39년, 아흔두 살), 결혼했으며(서기 40년), 첫아들을 잃었다(서기 40~41년). 그리고 아들을 묻은 지 20일 뒤, 칼리굴라의 뒤를 이은 클라우디우스에게 로마에서 추방당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 철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박해였을까. 슬픔에 빠진 세네카가 아그리피나의 누이 율리아 리빌라와 결국 불륜을 저질렀을까. 기록은 흐릿하고, 우리 시대의 추문처럼 소문과 속셈과 엇갈리는 증언으로 가득하다. 어쨌든 세네카는 간통 혐의로 기소되었고, 서기 41년 마흔다섯 살에 아버지와 아들을 잃고 슬퍼하던 그는 먼 코르시카섬으로 쫓겨났다. 또다시 유망한 경력이 변덕스럽게 끊긴 것이다. 이집트에서의 10년처럼 이것도 로마를 떠난 긴 시간, 8년이 된다. 처음에는 『폴리비우스에게 보내는 위로』, 『헬비아에게 보내는 위로』, 『분노에 관하여』를 짧은 사이에 써 낼 만큼 생산적이었지만, 고립은 차츰 그를 갉아먹었다. 얼마 전까지 남에게 위로의 글을 쓰던 사람이 곧 스스로 위로가 필요해졌다. 그는 누구라도 그랬을 것처럼 화가 났지만, 그 분노에 굴복하는 대신 그 힘을 바로 그 주제에 관한 책 『분노에 관하여(De Ira)』에 쏟아 형제에게 바쳤다. 독자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분명한, 아름답고 뭉클한 책이다. 무지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진실만 말하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말하라, 웃으며 떠나라, 많은 것을 견딜 각오를 하라. 이런 자기 대화는 스토아에서 클레안테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세네카는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곧 친구와 가족을 빼앗기고 부당한 유죄 판결을 받고 소중한 세월을 도둑맞은 상황에 적용하고 있었다. 이 시기 세네카의 편지와 에세이에 가장 자주 나오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죽음이다. 어려서부터 결핵이 드리워 한때는 자살까지 생각하게 했던 사람이니, 삶의 마지막 장(章)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삶의 끝에 다다른 것처럼 마음을 준비하자고, 아무것도 미루지 말고 날마다 삶의 장부를 맞추자고, 날마다 삶에 마무리 손질을 하는 사람은 결코 시간이 모자라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일깨웠다. 유배지에서 그는 로마의 곡물 공급을 감독하던 자리를 막 잃은 장인을 위로하며, 곡물 시장의 대차대조표보다 자기 삶의 대차대조표를 내는 편이 낫다고 썼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가 죽음을 불확실한 앞날에 놓인 것으로 보는 생각에 이의를 단 일이다. 그는 우리가 죽음을 앞으로 내다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실수라며, 죽음의 대부분은 이미 지나갔고 지나간 시간은 모두 죽음의 것이라고 썼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 가고 있으며, 한 번 죽은 날은 되살릴 수 없다는 깨달음이다.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삶의 세월이 두 번째로 흘러가 버리는 것을 지켜보던 사람에게 이것은 특히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었을 것이다. 이에 절망하는 것은 스토아답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분명 무척 인간적인 일이었다.

어법

- **In a span of less than two years, Seneca would lose his father ..., get married ..., then lose his firstborn son** : would = 과거에서 본 미래(그 뒤 ~하게 된다). 조동사 would 하나에 원형 lose · get married · lose가 병렬된다.
- **And then twenty days after burying his son, he would be banished from Rome by Claudius, the successor to Caligula.** : 전치사 after + 동명사. be banished = 수동(추방'당하다'). by Claudius = 행위자, the successor to Caligula = 동격. 추방한 사람은 칼리굴라가 아니라 클라우디우스다.
- **Did Seneca, in his grief, end up having an affair with Julia Livilla, sister of Agrippina?** : end up + -ing = 결국 ~하게 되다. 원서는 의문문으로만 던지고 답하지 않는다 — 불륜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We are not sure · The record is murky).

- **The record is murky, and, like scandals of our own time, beset with rumors and agendas and conflicting accounts.** : and 뒤에 반복되는 is가 생략되고 과거분사 보어 beset만 남았다. be beset with = ~에 시달리다, ~으로 가득하다.
- **the man who had not long before been writing consolations to other people clearly needed some consoling himself** : had been -ing = 과거완료 진행(그 전까지 계속 써 왔다). need + 동명사(consoling) = ~받을 필요가 있다(수동의 뜻). himself = 강조(그 자신이).
- **rather than give in to that rage, he channeled the energy into a book on the topic** : rather than + 원형 = ~하는 대신. give in to = ~에 굴복하다. channel A into B = A를 B에 쏟다.
- **he could not help but constantly think and write about the final act of life** : cannot help but + 원형 = ~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help -ing). 부사 constantly가 but과 원형 사이에 끼었다.
- **"Believe me, it's better to produce the balance-sheet of your own life than that of the grain market."** : 가주어 it – 진주어 to produce. that = 앞의 the balance-sheet를 대신하는 대명사(명사 반복 회피). better A than B.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banish	추방하다	exile	recall
persecution	박해	oppression	—
murky	흐릿한, 불분명한	unclear	clear
beset (with)	(~에) 시달리는	plagued	—
capriciously	변덕스럽게	arbitrarily	predictably
wear on	(사람을) 지치게 하다	exhaust	—
consolation	위로	comfort	—
channel (v.)	(힘을) 쏟다	direct	—
loom	(불길하게) 드리우다	hang over	—
postpone	미루다	delay	hasten
quibble with	이의를 달다	take issue with	accept
revive	되살리다	resurrect	—
despair (v.)	절망하다	lose hope	hope

내용 일치 아버지 = 39 AD 92세 사망 · 결혼 = 40 AD · 첫아들 = 40~41 AD · 20일 뒤 클라우디우스가 추방 · 추방 이유 = '확실하지 않음'(박해? 율리아 리빌라와의 불륜? — 기록이 흐릿함) · 간통 혐의 기소 · 41 AD 45세 코르시카 · 8년 · 『분노에 관하여』 = 형제에게 헌정 · 자기 대화 = 클레안테스 이래 · 장인 = 곡물 공급 감독직을 잃음. **밑줄 의미** out of the frying pan and into the fire = 나쁜 처지에서 더 나쁜 처지로 / the balance-sheet of your own life = 날마다 삶을 결산하라(장인의 곡물 장부와 대비) / Most of death is already gone = 지나간 시간은 이미 죽음의 것, 우리는 날마다 죽어 감.

> **한 줄 요약** 잇따른 상실 끝에 이유도 분명하지 않은 채 코르시카로 쫓겨난 세네카는 분노를 책으로 돌렸고, 죽음의 대부분이 이미 지나갔다는 깨달음에 이르렀다.

18-5 운명의 회오리, 네로의 스승이 되다 136쪽 ¶3 ~ 137쪽 ¶2

원문 위치 원서 136쪽 ¶3 ~ 137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36쪽 ¶3	he captured just how capricious and random fate could be	간접의문문(how + 형용사)
◆	136쪽 인용	Clotho mixes one with the other and stops Fortune from resting	밑줄 의미: 운명은 쉬지 않고 돈다
▲	136쪽 ¶4 첫 문장	Fate had caused him to be born to wealth	cause + O + to V(수동 to be born)
◆	136쪽 ¶4 넷째 문장	usually in exactly the form he was not expecting	요지 후보
▲	136쪽 ¶5 첫 문장	Little did Seneca know in 50 AD	부정어 Little 도치
★	136쪽 ¶6 첫 문장	Agrippina, the great-granddaughter of Augustus, … twelve-year-old son, Nero	인물·숫자 — 서답형 후보
▲	136쪽 ¶6 둘째 문장	Having married Claudius, … one of her first moves as empress was	현수 분사(의미상 주어 = Agrippina)
★	136쪽 ¶6 둘째 문장	in 49 AD … recall Seneca from Corsica to serve as their son's tutor	연도 — 내용 일치 후보
★	136쪽 ¶7 첫 문장	at fifty-three years of age	숫자 — 내용 일치 1순위
▲	136쪽 ¶8 둘째 문장	in basically everything but philosophy	but = ~을 제외하고
●	136쪽 ¶8 둘째 문장	political strategy, not Stoicism	반전 후보 → Stoicism
▲	136쪽 ¶8 셋째 문장	Seneca's lessons would have revolved around law and oratory	would have p.p.(추측)
◆	137쪽 첫 줄 둘째 문장	like vegetables baked into a child's muffin	밑줄 의미: 몰래 끼워 넣은 철학
★	137쪽 ¶1 첫 문장	Like Arius and Athenodorus with Octavian	15·16장 연결 · 통합 사고 후보
◆	137쪽 ¶1 다섯째 문장	no hope that he could achieve anything by direct opposition	요지 후보(에밀리 윌슨)
◆	137쪽 ¶2 둘째 문장	become a self-fulfilling prophecy	밑줄 의미: 무력하다는 믿음이 무력을 낳음

내용

말년에 쓴 한 희곡에서 세네카는, 분명 절절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듯, 운명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제멋대로일 수 있는지를 그렸다. 동트는 날이 오만한 사람을 보면 저무는 날은 그가 낮아지는 것을 본다. 누구도 승리를 너무 믿어서도, 시련이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버려서도 안 된다. 클로토는 둘을 뒤섞어 포르투나(운명)가 쉬지 못하게 하며 모든 운명을 돌린다.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만큼 신의 은총을 받지는 못했다. 신은 우리 삶을 회오리 속에서 돌며 내달리게 한다. 운명은 그를 부유하게 태어나게 했고 훌륭한 스승들을 주었다. 그러나 건강을 약하게 했고, 경력이 막 날아오를 때 두 번이나 그를 부당하게 내쫓았다. 운명은 그의 삶 내내 제멋대로 굴었다. 우리에게처럼 그에게도 운명은 성공과 실패, 고통과 기쁨을 가져왔는데, 대개 그가 예상하지 못한 바로 그 모습으로였다. 서기 50년의 세네카는 이 일이 또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시련은 곧 나아지려 했고, 그의 삶은 역사가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한 회오리 속으로 휘말리려 하고 있었다. 아우구스투스의 증손녀 아그리피나는 열두 살 아들 네로에게 큰 야망을 품고 있었다. 서기 49년 칼리굴라의 후계자 클라우디우스와 결혼하고 그를 설득해 네로를 입양하게 한 그녀가 황후로서 한 첫 일 가운데 하나는, 클라우디우스를 설득해 세네카를 코르시카에서 불러들여 두 사람의 아들을 가르치게 한 것이었다. 언젠가 아들을 황제로 만들 계획을 세운 그녀는 네로를 위해 세네카의 정치적 · 수사적 · 철학적 두뇌가 필요했다. 갑자기, 쉰세 살의 나이에, 오랫동안 체제에 거슬리지만 변두리로 밀려나 있던 세네카가 로마 황실 궁정의 한가운데로 올라섰다. 평생의 노력과 야망이 마침내 최고의 후원자를 낳았고, 세네카 집안 전체가 이 기회를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네카는 어린 네로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버지가 거의 철학만 빼고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아탈루스를 고용했듯, 아그리피나는 세네카가 네로에게 스토아 철학이 아니라 정치 전략을 가르치기를 바랐다. 수업은 아마 법과 웅변, 곧 논쟁하는 법과 전략을 짜는 법을 중심으로 돌았을 것이다. 스토아의 원칙은 아이의 머핀에 구워 넣은 채소나 약을 감춘 설탕처럼 몰래 끼워 넣었을 것이다. 옥타비아누스를 가르친 아리우스와 아테노도로스처럼, 세네카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 곧 황제의 자줏빛 옷을 입는 일을 위해 소년을 준비시키고 있었다. 공화정 시절 로마인들은 절대 권력을 경계했지만, 이제 세네카의 일은 누군가에게 그것을 갖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불과 몇 세대 전만 해도 스토아는 공화정 이상의 열렬한 수호자였지만(카토는 세네카의 영웅 가운데 하나였다), 아우구스투스가 죽을 무렵에는 이런 반대가 대부분 소용없어졌다. 세네카의 번역가이자 전기 작가인 에밀리 윌슨은, 키케로는 카이사르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정말 무너뜨릴 수 있다고 희망했지만 세네카는 자신이 섬긴 어느 황제에게도 정면으로 맞서 무엇을 이룰 희망이 없었고, 그의 최선의 희망은 네로의 가장 나쁜 성향 몇 가지를 누그러뜨리고 자기 자율성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었다고 쓴다. 이해는 간다. 그러나 질문은 남는다. 더 희망을 품은 세네카였다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아니면 한 사람이 현상을 바꾸기에 무력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스스로 실현되는 예언이 되는 것일까.

어법

- **he captured just how capricious and random fate could be** : captured의 목적어인 간접의문문 — how + 형용사가 앞으로 나오고 주어 fate + could be 어순. how capricious could fate be로 쓰면 간접의문문 어순이 아니어서 비문.
- **Fate had caused him to be born to wealth and had given him great tutors.** : cause + O + to V. to be born = 수동형 to부정사. be born to wealth = 부유하게 태어나다. had p.p. 둘 병렬(대과거: 서기 50년 이전의 일).
- **she brought success and failure, pain and pleasure ... usually in exactly the form he was not expecting** : she = Fortune(의인화, ¶4 셋째 문장). the form 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he was not expecting the form).
- **Little did Seneca know in 50 AD that this was going to happen again.** : 부정어 Little(= 전혀 ~않다)이 문두 → did + 주어 + 원형 know 도치. was going to = 과거에서 본 예정.
- **Having married Claudius, Caligula's successor, in 49 AD and convinced him to adopt Nero, one of her first moves as empress was to persuade Claudius to recall Seneca** : 완료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아그리피나인데 주절 주어는 one of her first moves — 현수 분사다. Having 하나에 married와 convinced가 병렬. convince · persuade + O + to V. 주어 one(단수) → was.

- **just as his father had hired Attalus to tutor Seneca in basically everything but philosophy, Agrippina wanted Seneca to teach Nero political strategy, not Stoicism** : just as ~ = 꼭 ~했듯이. had hired = 대과거. but = ~을 제외하고(전치사). want + O + to V. teach + 사람 + 내용(4형식).
- **Any Stoic principles would have been snuck into his lessons like vegetables baked into a child's muffin** : would have been p.p. = ~되었을 것이다(과거에 대한 추측 · 수동). snuck = sneak의 과거분사(미국식). baked = vegetables를 꾸미는 과거분사.
- **Or does accepting that one person is powerless to change the status quo become a self-fulfilling prophecy?** : 동명사구 주어 accepting that ~ → 의문문의 조동사 does(3인칭 단수). be powerless to V = ~할 힘이 없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apricious	변덕스러운	fickle	steady
whirlwind	회오리바람	tornado	—
recall (v.)	(추방자를) 불러들이다	summon back	banish
subversive	체제를 흔드는	rebellious	conformist
marginalized	변두리로 밀려난	sidelined	included
patron	후원자	sponsor	—
oratory	웅변(술)	rhetoric	—
leery	경계하는	wary	trusting
ardent	열렬한	passionate	indifferent
futile	소용없는	useless	effective
moderate (v.)	누그러뜨리다	temper	intensify
autonomy	자율성	independence	dependence
status quo	현상(現狀)	existing state	—

내용 일치 운명의 시 = 말년의 희곡 · 50 AD · 아그리피나 = 아우구스투스의 증손녀 · 네로 12세 · 49 AD 클라우디우스와 결혼 · 네로 입양 · 세네카를 코르시카에서 소환 · 53세 · 가르치기를 바란 것 = 스토아가 아닌 정치 전략(법과 웅변 중심은 '추측') · 아리우스 · 아테노도로스와 옥타비아누스 · 카토 = 세네카의 영웅 · 에밀리 윌슨 = 세네카의 번역가 · 전기 작가. **지칭** 136쪽 인용 them = someone, they = No one(단수 they) / 136쪽 ¶4 It = Fate, she = Fortune / ¶6 him(convinced him) = Claudius, their son = Nero, Plotting for him의 him = Nero / 137쪽 ¶1 the boy = Nero, it(how to have it) = absolute power.

> **한 줄 요약** 변덕스러운 운명은 쉰세 살의 세네카를 코르시카에서 궁정 한가운데로 끌어올렸고, 그는 철학이 아니라 정치 전략을 원한 아그리피나의 뜻에 따라 어린 네로를 가르쳤다.

18-6 파우스트의 거래, 『관용론』과 조각상 137쪽 ¶3 ~ 138쪽 ¶3

원문 위치 원서 137쪽 ¶3 ~ 138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37쪽 ¶3	What Seneca did believe was that a Stoic was obligated to serve	what절 주어 + 강조의 did
★	137쪽 ¶3	an empire that had already been through four emperors in his lifetime	숫자 — 내용 일치 후보
◆	137쪽 ¶4 첫 문장	what a Faustian bargain this would be	밑줄 의미 1순위
●	137쪽 ¶4 셋째 문장	Nero didn't seem to care about his education—not like Octavian	반전 후보 · 16장 연결
★	137쪽 ¶4 여섯째 문장	the alternative to Nero was returning to exile in Corsica	요지 후보
★	137쪽 ¶5 첫 문장	In 54 AD, roughly five years into Seneca's employment at court	연도 — 내용 일치 후보
▲	137쪽 ¶5 첫 문장	Agrippina had her husband, Claudius, killed	사역 have + O + p.p.
★	137쪽 ¶5 둘째 문장	Nero was made emperor at age sixteen	숫자 — 서답형 후보
★	137쪽 ¶6 셋째 문장	De Clementia, which laid out a path "for the good King"	책 제목 — 서답형 후보
★	137쪽 ¶7 첫 문장	there was no Greek word for clemency	내용 일치 후보(캐스터)
★	137쪽 ¶7 둘째 문장	something more profound and new: what one does with power	빈칸 1순위
▲	137쪽 ¶7 넷째 문장 ~ 138쪽 첫 줄	anything more becoming to a ruler than clemency, whatever sort of ruler he is	비교급 + than / whatever + 명사
◆	138쪽 ¶2 첫 문장	it clearly evolved—or rather devolved—over time	밑줄 의미: 나아지기는커녕 나빠짐
★	138쪽 ¶2 둘째 문장	the Spanish sculptor Eduardo Barrón in 1904	인물·연도 — 서답형 후보
▲	138쪽 ¶2 다섯째 문장	Spread across his lap and onto the simple bench is a document	보어 문두 → 동사 · 주어 도치
▲	138쪽 ¶3 여섯째 문장	as if he can't bring himself to pay attention	as if + 직설법 / bring oneself to V

내용

세네카가 정말로 믿은 것은, 스토아는 할 수 있는 한 나라를 섬길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경우 그 나라는 그가 사는 동안 이미 네 명의 황제를 거친 제국이었다. 그리고 그는 틀림없이, 갇혀 있던 그 버림받은 섬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거의 어떤 역할이든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그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파우스트의 거래'가 될지 알았을까. 조짐은 있었다. 네로는 적어도 옥타비아누스와 달리 교육에 관심이 없어 보였고, 황제보다는 음악가와 배우가 되고 싶어 하는 듯했다. 그는 특권 의식에 젖고 잔인했으며, 버릇없고 쉽게 산만해졌다.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그러나 네로의 대안은 코르시카 유배지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서기 54년, 세네카가 궁정에서 일한 지 5년쯤 되었을 때, 아그리피나는 독버섯으로 남편 클라우디우스를 죽게 했다. 네로는 열여섯 살에 황제가 되었고, 세네카는 이 아마추어 같은 아이에게 수백만 명을 다스리는 거의 신과 같은 권력을 주는 것이 완전히 미친 짓은 아니라고 로마를 설득할 네로의 연설문을 써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절대 권력이 타락시키는 것으로도 모자라, 네로는 어머니와 양아버지에게서 일찍부터 끔찍한 교훈을 보고 배운 것이 분명했다. 스승이자 멘토로서 세네카는 방향을 바로잡으려 했다. 그가 새 황제에게 처음 준 것 가운데 하나는 직접 쓴 『관용론(De Clementia)』이었다. '좋은 왕'을 위한 길을 펼쳐 보이며 네로가 따르기를 바란 책이다. 관용과 자비는 오늘날 당연한 개념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꽤 혁명적인 조언이었다. 고전학자 로버트 A. 캐스터는 그리스어에 '관용'을 뜻하는 낱말이 없었다고 쓴다. 철학자들은 자제와 온화함을 말했지만, 세네카가 말한 것은 더 깊고 새로운 것, 곧 권력으로 무엇을 하는가였다. 특히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였다. 그것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세네카는 어떤 종류의 통치자든, 어떤 조건으로 남을 맡게 되었든, 통치자에게 관용보다 더 어울리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네로뿐 아니라 훗날 이 글을 읽을 모든 지도자를 겨냥한 교훈이었다. 관용이 더 많다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다. 역사를 잠깐만 훑어봐도 알 수 있다. 문제는 지도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일이다. 세네카와 네로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분명 변해 갔다는, 아니 나빠져 갔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러나 그 본질은 아마 스페인 조각가 에두아르도 바론이 1904년에 만든 두 사람의 조각상이 가장 잘 담고 있을 것이다. 실제 사건으로부터 18세기쯤 뒤의 장면을 담았는데도 두 사람의 성격에서 시대를 넘는 요소를 잡아낸다. 훨씬 나이 든 세네카는 다리를 꼬고 앉아 아름다운 토가를 걸쳤을 뿐 다른 꾸밈이 없다. 무릎과 소박한 의자 위로 그가 쓴 문서가 펼쳐져 있다. 연설문일 수도, 원로원에서 논의 중인 법안일 수도, 실제로 『관용론』일 수도 있다. 그의 손가락은 글의 한 곳을 가리키고 몸짓은 열려 있다. 그는 어린 제자에게 앞에 놓인 일의 무게를 심어 주려 애쓰고 있다. 맞은편에 앉은 네로는 거의 모든 면에서 스승과 정반대다. 그는 두건을 쓰고 왕좌 같은 의자에 앉아 있다. 뒤에는 고운 담요가 놓여 있고 보석을 걸쳤다. 표정은 뚱하다. 두 주먹을 쥐었고, 한 주먹을 관자놀이에 괸 모습이 도무지 집중할 마음이 없는 듯하다. 그는 땅을 내려다보고, 발은 뒤로 넣어 발목을 꼬았다.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듣지 않는다. 어디라도 다른 곳에 있고 싶다. 머지않아 이 강의를 견딜 필요가 없어지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어법

- **What Seneca did believe was that a Stoic was obligated to serve the country ... as best one could** : What절이 주어 → 단수 was. did believe = 강조의 do(앞 단락의 의문과 달리 '정말로 믿은 것'). be obligated to V. as best one can = 힘닿는 데까지.
- **surely he was willing to accept just about any role to get off the godforsaken island he had been stuck on** : to get off = 목적의 to부정사. the island 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전치사 on이 문장 끝에 남았다(he had been stuck on the island). on을 빼면 비문.
- **Nero didn't seem to care about his education—not like Octavian, anyway—and he seemed to want to be a musician and an actor more than he wanted to be an emperor** : seem to V = ~처럼 보이다(저자의 판단을 누그러뜨림). not like Octavian = 옥타비아누스처럼 관심을 둔 것은 아니라는 삽입. more than 뒤 절 비교.
- **Agrippina had her husband, Claudius, killed by way of poisoned mushrooms** : 사역 have + O + p.p. = O가 ~되게 하다(직접 죽였다는 뜻이 아니라 죽게 함). Claudius = her husband의 동격. by way of = ~을 통해.

- **Seneca was asked to write the speeches that Nero would give to convince Rome that it wasn't totally insane to give this dilettante child nearly godlike powers** : ask + O + to V의 수동. that Nero would give =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to convince = 목적. it = 가주어, to give ~ = 진주어. give + 간접목적어(child) + 직접목적어(powers).
- **a work he composed, entitled De Clementia, which laid out a path "for the good King" and that he hoped Nero would follow** : which절과 that절이 and로 병렬 — 둘 다 a work(De Clementia)를 받는다. that절 안에 he hoped가 끼어, Nero would follow의 목적어(선행사)가 앞으로 빠져나간 구조.
- **No one will be able to imagine anything more becoming to a ruler than clemency, whatever sort of ruler he is and on whatever terms he is put in charge of others.** : 부정 주어 + 비교급 than = 최상급 뜻(관용이 가장 어울린다). becoming = 어울리는(형용사). whatever + 명사 = 어떤 ~이든(양보).
- **Spread across his lap and onto the simple bench is a document he's written.** : 보어(과거분사구)가 문두로 나가 동사 is + 주어 a document가 도치. a document 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he's written = he has written.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obligated	의무가 있는	bound	—
godforsaken	버림받은, 황량한	desolate	—
Faustian bargain	파우스트의 거래(영혼을 내준 거래)	devil's bargain	—
entitled	특권 의식에 젖은	self-important	humble
bode well	좋은 징조이다	augur well	bode ill
dilettante	아마추어, 어설픈 사람	amateur	professional
clemency	관용	mercy	severity
profound	깊은	deep	shallow
becoming (adj.)	어울리는	fitting	unbecoming
cursory	대충의, 잠깐의	hasty	thorough
devolve	퇴보하다	deteriorate	evolve
unadorned	꾸밈없는	plain	ornate
sullen	뚱한, 시무룩한	sulky	cheerful

내용 일치 봉사 = 스토아의 의무 · 네 황제를 거친 제국 · 네로 = 교육에 무관심해 보임(옥타비아누스와 달리) · 음악가 · 배우가 되고 싶어 하는 듯 · 대안 = 코르시카 · 54 AD 궁정 고용 약 5년째 · 아그리피나가 독버섯으로 클라우디우스를 죽게 함(원서 서술) · 16세 황제 · 연설문 · 『관용론』 · 캐스터 = 그리스어에 '관용'이 없음 · 바론(스페인, 1904) · 약 18세기 뒤의 장면.
밑줄 의미 a Faustian bargain = 원하는 것을 얻는 대신 영혼을 내주는 위험한 거래 / what one does with power =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그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냄) / evolved—or rather devolved = 나아졌다기보다 나빠졌다.

> **한 줄 요약** 섬을 벗어나려 '파우스트의 거래'를 받아들인 세네카는 열여섯 살 황제에게 권력으로 무엇을 할지 묻는 『관용론』을 주었지만, 조각상 속 네로는 듣지 않는다.

18-7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풀려난 네로 138쪽 ¶4 ~ 139쪽 ¶4

원문 위치 원서 138쪽 ¶4 ~ 139쪽 ¶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38쪽 ¶4 첫 문장	Seneca can clearly see this body language, and yet he proceeds.	and yet(역접) · 현재 시제(조각상 묘사)
◆	138쪽 ¶4 넷째~일곱째 문장	Because … Because … Because … And because	요약 후보: 계속 가르친 이유 넷
▲	138쪽 ¶4 여섯째 문장	his job was to try to teach Nero to be good (he would literally die trying)	try to V / die -ing
★	138쪽 ¶4 일곱째 문장	never going to turn down a chance to be that close to power	요지 후보: 야망도 이유
▲	138쪽 ¶5 첫 문장	a man whom time would shortly reveal to be deranged	목적격 whom + reveal + O + to be
▲	138쪽 ¶5 셋째 문장	one that Rome would have been worse off without	without의 목적어 that · 가정
◆	138쪽 ¶5 여섯째 문장	You can lead a horse to water, but you can't make it drink.	밑줄 의미 1순위
★	138쪽 ¶5 일곱째 문장	You control what you do and say, not whether people listen.	요지·요약 1순위
★	138쪽 ¶6 셋째 문장	the Stoics felt that politics was a duty	요약 후보
▲	138쪽 ¶6 다섯째~여섯째 문장	will not engage … except in an emergency / unless something prevents him	except / unless 대비
◆	138쪽 ¶7	Nothing was preventing Seneca—least of all his own ambitions	밑줄 의미: 야망은 막기는커녕 부추김
★	139쪽 ¶1 둘째 문장	Burrus, the military leader also chosen by Agrippina	인물 — 서답형 후보
★	139쪽 ¶1 셋째~넷째 문장	In 55 AD, Seneca's brother Gallio was made consul. The following year	연도·인물 — 내용 일치 후보
◆	139쪽 ¶2 둘째 문장	peace and stability are fragile and punctured, quite capriciously	요지 후보: 이 장의 반복 주제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39쪽 ¶3 다섯째 문장	Arius had advised Augustus to eliminate the other, "too many Caesars,"	16장 연결 · 통합 사고 후보
▲	139쪽 ¶4 셋째 문장	a fact of which his attendants prevented him from knowing	전치사 + which / prevent + O + from -ing

내용

세네카는 이 몸짓을 똑똑히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가르침을 이어 간다. 실제로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했다. 왜일까. 일부라도, 무엇이라도 전해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걸린 것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네로가 선해지도록 가르치려 애쓰는 것이 자기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다(그는 말 그대로 그러다 죽게 된다). 그리고 권력에 그토록 가까이 있을 기회,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칠 기회를 결코 마다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세네카는 머지않아 정신이 이상하고 결함 많은 사람으로 드러날 네로를 거의 바꾸지 못했다. 처음부터 가망 없는 일이었을까. 세네카의 안정된 손길은 그것이 없었다면 로마가 더 나빠졌을, 긍정적인 영향이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세네카가 애썼다는 것이다. 오래된 교훈 그대로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우리가 통제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말하는가이지, 사람들이 듣느냐가 아니다. 스토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나타나서 자기 일을 하는 것뿐이다. 세네카는 그래야 한다고 믿었고, 분명 그러고 싶기도 했다. 훗날 그가 썼듯 스토아와 에피쿠로스학파의 차이는 스토아가 정치를 의무로 여겼다는 데 있었다. 그는 두 학파가 대부분의 일에서처럼 이 일에서도 의견이 다르다며, 에피쿠로스는 현자가 위급할 때가 아니면 공적인 일에 나서지 않으리라고 말하고, 제논은 무언가가 막지 않는 한 나서리라고 말한다고 썼다. 세네카를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무엇보다 그 자신의 야망은 전혀 막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계속 애썼다. 기록에 따르면 처음 몇 해 동안 세네카는 안정된 손길이었다. 역시 아그리피나가 고른 군 지휘관 부루스와 함께 일하는 동안, 동시대인들에 따르면 로마는 오랜만에 잘 다스려졌다. 서기 55년에는 세네카의 형제 갈리오가 집정관이 되었고, 이듬해에는 세네카 자신이 그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운명에 관해 쓴 그의 시가 말했듯 이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실 그것이 세네카 삶의 변함없는 주제인 듯하다. 평화와 안정은 깨지기 쉽고, 그가 어쩔 수 없는 사건들이 꽤 변덕스럽게 그것을 찢어 놓는다. 편집증과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잔인한 기질에 이끌린 네로는 경쟁자들을 없애기 시작했다. 첫 희생자는 형제 브리타니쿠스였는데, 클라우디우스처럼 독살되었다. 그는 어머니를 몰아내고 그녀도 죽일 궁리를 하며 여러 번 치명적인 독을 먹이려다 실패했다. 한 기록에는 네로가 공들인 배 사고로 어머니를 죽이려 한 이야기도 있다. 마침내 서기 59년 무렵 일은 끝났다. 바론의 조각상이 담은, 억눌린 채 기다리던 그 초기의 네로가 이제 풀려났다. 타키투스의 말로는, 그는 오래 품어 온 범죄를 더는 미루지 않았다. 권력이 무르익어 녹처럼 영혼에 배어들자, 아무리 타락한 일이라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다. 세네카도 틀림없이 이 전환점을 알아차렸다. 아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에게 '카이사르가 너무 많다'며 다른 카이사르를 없애라고 조언했지만, 세네카는 네로에게 아무리 강한 왕이라도 결국 모든 후계자를 죽일 수는 없다고, 언젠가 누군가는 뒤를 잇게 된다고 일깨워야 했다. 그러나 네로는 듣지 않았고, 결국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혈통의 남자를 모두 죽였다. 죽이지 않을 때에도 그가 제국의 일을 성실히 돌본 것은 아니었다. 그는 로마 밖에 마련한 좋아하는 경주장에서 전차를 몰았고, 노예들을 억지로 끌어다 구경하며 손뼉 치게 했다. 무대에 서려고 나랏일을 내팽개치고 싸구려 배우처럼 노래하고 춤추었다. 수에토니우스에 따르면 시종들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누구도 극장을 떠나지 못하게 하여, 네로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막았다.

어법

- **Because he hoped some of it—any of it—would get through.** : 주절(He proceeded) 없이 Because절만 떼어 쓴 답변 — 앞 문장 Why?에 답하는 구어체. 대시 사이 any of it = some of it을 고쳐 말하며 강조. get through = (말이) 전해지다.

- **he knew his job was to try to teach Nero to be good (he would literally die trying)** : 보어 to try ~. try to V(~하려 애쓰다) 안에 teach + O + to V. die trying = 애쓰다가 죽다(분사구문).
- **Nero, a man whom time would shortly reveal to be deranged and flawed** : 목적격 whom(reveal의 목적어). reveal + O + to be ~ = O가 ~임을 드러내다. would = 과거에서 본 미래.
- **Was Seneca's steady hand a positive influence—one that Rome would have been worse off without?** : one = a positive influence. that = 문장 끝 전치사 without의 목적어(Rome would have been worse off without it). would have p.p. = 그것이 없었다면 ~했을 것이다(가정).
- **You control what you do and say, not whether people listen.** : control의 목적어 둘: what절(관계대명사)과 whether절(~인지 아닌지)을 not으로 대비. A, not B = B가 아니라 A.
- **"Epicurus says: 'The wise man will not engage in public affairs except in an emergency.' Zeno says: 'He will engage in public affairs unless something prevents him.'"** : except + 전치사구 = ~을 빼고는(위급할 때만) ↔ unless + 절 = ~하지 않는 한(막지 않으면 언제나). 같은 동사 engage in으로 두 학파를 맞세웠다.
- **Nothing was preventing Seneca—least of all his own ambitions—so he kept trying.** : least of all = (부정문 뒤) 무엇보다도 ~은 아니다. keep -ing = 계속 ~하다. 제논의 unless something prevents him을 받은 말놀이.
- **a fact of which his attendants prevented him from knowing by, according to Suetonius, not allowing anyone "to leave the theatre"** : of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know of a fact에서 of가 앞으로 나옴). prevent + O + from -ing = O가 ~하지 못하게 막다. by + 동명사(not allowing) = 수단, 부정어 not은 동명사 앞.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roceed	계속하다	continue	halt
turn down	거절하다	reject	accept
deranged	정신이 이상한	insane	sane
worse off	형편이 더 나쁜	—	better off
at variance	의견이 다른	in disagreement	in agreement
engage in	참여하다	take part in	abstain from
puncture (v.)	구멍을 내다, 깨뜨리다	pierce	—
inherit	물려받다	receive	bequeath
dispatch (v.)	처치하다, 죽이다	kill	—
defer	미루다	postpone	hasten
depraved	타락한	corrupt	virtuous
dutiful	성실한	conscientious	negligent
neglect	소홀히 하다	ignore	attend to

내용 일치 계속 가르친 이유 = 전해지리라는 희망 · 걸린 것이 큼 · 네로를 선하게 가르치는 것이 자기 일 · 권력 곁의 기회 / 로마에 긍정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음' · 에피쿠로스 = 위급할 때만 / 제논 = 막지 않는 한 · 부루스 = 역시 아그리피나가 고른 군 지휘관 · 55 AD 형제 갈리오 집정관 · 이듬해 세네카 집정관 · 브리타니쿠스 독살 · 59 AD 어머니 살해 ·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남자 모두 · 전차 · 무대(수에토니우스). **밑줄 의미** lead a horse to water ... can't make it drink = 가르칠

수는 있어도 배우게 만들 수는 없다 / least of all his own ambitions = 야망은 그를 막기는커녕 더 부추겼다 / "too many Caesars" = 경쟁하는 후계자를 없애라는 아리우스의 조언(16장).

> **한 줄 요약** 듣지 않는 제자 곁에서도 세네카는 의무와 야망 때문에 가르침을 이어 갔고 처음 몇 해는 로마가 잘 다스려졌지만, 네로는 곧 형제와 어머니를 죽이고 무대로 달려갔다.

18-8 왜 떠나지 못했나 — 두려움, 선의, 3억 세스테르티우스 139쪽 ¶5 ~ 140쪽 ¶4+인용

원문 위치 원서 139쪽 ¶5 ~ 140쪽 ¶4+인용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39쪽 ¶6 첫 문장	One explanation is fear.	요약 1순위
▲	139쪽 ¶6 둘째 문장	he had watched emperors murder and banish with impunity	지각동사 watch + O + 원형
★	139쪽 ¶6 다섯째 문장	After the death of Britannicus, Seneca and Burrus no longer gave any careful attention	디오 카시우스 — 내용 일치 후보
▲	139쪽 ¶6 다섯째 문장	were satisfied if they might manage it with moderation and still preserve their lives	지칭: it = the public business
▲	139쪽 ¶6 여섯째 문장	Perhaps he thought, as people think today with flawed leaders, that	삽입절 + that절(추측)
◆	139쪽 ¶6 아홉째~열째 문장	We're just wicked people living among wicked people … a pact of mutual leniency	밑줄 의미 후보
▲	139쪽 ¶6 열한째 문장	a goodness despite the flaws, that has been lost to the historical record	동격 + 관계절(선행사 something)
▲	140쪽 ¶1 둘째 문장	It's hard to get someone to see … what their salary depends on them not seeing	get + O + to V /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	140쪽 ¶2 둘째 문장	largely through gifts from his boss, … some three hundred million sesterces	숫자 — 서답형 1순위
★	140쪽 ¶2 셋째 문장	certainly the richest Stoic on earth, possibly the richest ever to live	certainly vs possibly(확신의 정도)
★	140쪽 ¶2 넷째 문장	some five hundred identical citrus wood tables with ivory legs	숫자 — 내용 일치 후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40쪽 ¶2 다섯째 문장	throwing Gatsbyesque parties funded by the gifts of his murderous boss	밑줄 의미: 검소한 학파의 후예가 연 호화 파티
★	140쪽 ¶3 첫 문장	one statue, dating to the third century, ... a double bust of Seneca and Socrates	인물 — 서답형 후보
▲	140쪽 ¶3 넷째 문장	Socrates's wraps both shoulders, while Seneca's right shoulder is bare	소유격 단독 + while(대조)
★	140쪽 ¶4 첫 문장	P. Suillius ... Lex Cincia ... lawyers plead cases without compensation	인물·법 — 내용 일치 후보
◆	140쪽 인용 둘째 문장	nor will it be stained with another's blood	141쪽 ¶2와 연결 · 밑줄 의미

내용

세네카는 경악했다. 그런데 왜 떠나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런 수치의 일부가 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설명은 두려움이다. 그는 평생 황제들이 벌도 받지 않고 죽이고 추방하는 것을 보아 왔다. 그들의 부당한 손길을 직접 겪은 것도 한 번이 아니었다. 황제의 복수심이 그를 짓눌렀다. 디오 카시우스는 브리타니쿠스가 죽은 뒤 세네카와 부루스가 더는 나랏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적당히 꾸려 가며 목숨만 지킬 수 있으면 만족했다고 전한다. 어쩌면 그는, 오늘날 사람들이 결함 있는 지도자를 두고 그렇게 생각하듯, 네로를 통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세네카는 늘 사람들에게서, 네로처럼 누가 봐도 나쁜 사람에게서조차 선함을 찾았다. 그는 서로 친절하자고, 우리는 사악한 사람들 사이에 사는 사악한 사람일 뿐이며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서로 너그럽게 봐주자는 약속 하나뿐이라고 쓴 적이 있다. 어쩌면 그는 가까이에서 네로의 무언가, 결함에도 불구한 선함을 보았는데 그것이 역사의 기록에서 사라졌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주 현실적인 두려움과 이런 맹점에, 세네카의 자리가 주는 솔깃한 자기 이익이 더해졌는지도 모른다. 흔히 말하듯, 봉급이 보지 않는 데 달려 있는 것을 사람에게 보게 하기는 어렵다. 세네카는 네로의 정권 아래서 꽤 부유해졌고 계속 부유해졌다. 불과 몇 해 만에 그는 주로 상관의 선물로 약 3억 세스테르티우스의 재산을 모았다. 그는 분명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스토아였고, 어쩌면 역사상 가장 부유한 스토아였을 것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세네카는 손님 접대용으로만 상아 다리가 달린 똑같은 시트러스 나무 탁자를 500개쯤 가지고 있었다. 클레안테스의 검소한 학파를 잇는 스토아 철학자가 살인자 상관의 선물로 개츠비 같은 파티를 연다는 것은 기묘한 그림이다. 대부분의 미술은 세네카를 마르고 강인하게 그리지만, 실제 모습은 3세기의 조각상 하나, 그것도 세네카와 소크라테스의 두 얼굴 흉상으로만 남아 있다. 세네카는 소크라테스를 사랑해, 서른 명의 참주가 둘러쌌어도 그의 정신을 꺾지 못했다고 감탄한 적이 있다. 두 사람 모두 전형적인 철학자의 토가를 걸쳤다. 흥미롭게도 소크라테스의 토가는 두 어깨를 감싸지만 세네카는 오른쪽 어깨가 드러나 있다. 행복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적은지 깨달아야 한다는 그의 말, 우리의 토가를 닳게 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말에 보내는 눈짓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흉상은 호화로운 연회를 실컷 즐기고 네로를 섬기며 꽤 뚱뚱해진 노인의 모습도 드러낸다. 세네카의 사치와 재산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의 많은 부분은 P. 수일리우스라는 원로원 의원에게서 왔다. 그는 변호사가 보수 없이 변론해야 한다는 조항이 든 킨키우스 법의 부활 뒤에 세네카가 있다고 의심해 그에게 화가 나 있었다. 수일리우스의 동기는 꽤 의심스러웠고 그는 훗날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로마에서 추방되지만, 세네카의 위선을 공격한 그의 글에는 적어도 얼마간 진실이 있었다. 『행복한 삶에 관하여』에 담긴 세네카의 답변조차 그 자신이 분명히 미치지 못하는 기준을 세우는 듯하다. 그는 철학자에게 돈을 갖지 말라고 하지 말라며, 철학자는 넉넉한 부를 가질 것이지만 그 부는 누구에게서 빼앗은 것도, 남의 피로 얼룩진 것도 아니며, 누구도 해치지 않고 비열한 거래 없이 얻은 것이어서 그것을 쓰는 일도 얻는 일만큼 떳떳할 것이라고 썼다.

어법

- **His whole life he had watched emperors murder and banish with impunity.** : His whole life = 부사처럼 쓰인 명사구(평생). 지각동사 watch + O + 원형(murder · banish). had watched = 과거완료(그때까지 줄곧). with impunity = 벌받지 않고.
- **Seneca and Burrus no longer gave any careful attention to the public business, but were satisfied if they might manage it with moderation and still preserve their lives** : no longer = 더는 ~않다. it = the public business. might 뒤 원형 manage와 preserve 병렬. be satisfied if ~ = ~하면 만족하다.
- **Perhaps he thought, as people think today with flawed leaders, that he could do good through Nero.** : thought와 목적어 that절 사이에 as절(~하듯이)이 끼었다. Perhaps = 저자의 추측. do good = 선을 행하다(good은 명사).
- **Maybe he saw something in Nero up close, a goodness despite the flaws, that has been lost to the historical record.** : a goodness ~ = something의 동격. that절의 선행사도 something(a goodness) — 현재완료 수동 has been lost(지금까지 기록에서 사라진 상태). Maybe = 추측.
- **It's hard to get someone to see, the expression goes, what their salary depends on them not seeing.** : 가주어 it – 진주어 to get. get + O + to V(~하게 하다). the expression goes = 삽입절. what절 안에서 depend on + 의미상 주어 them + 동명사 not seeing. not은 동명사 앞.
- **In just a few short years, he had amassed, largely through gifts from his boss, a fortune of some three hundred million sesterces.** : had amassed와 목적어 a fortune 사이에 부사구가 끼었다. some + 수 = 약(어림수). largely = 주로(전부가 아님).
- **He was certainly the richest Stoic on earth, possibly the richest ever to live.** : certainly(확실히) ↔ possibly(어쩌면) — 저자의 확신 정도가 다르다. the richest ever to live = 지금까지 산 (스토아) 가운데 가장 부유한 — 앞의 Stoic이 생략된 대구(최상급 뒤 to부정사).
- **it will have been wrested from no man, nor will it be stained with another's blood** : will have been p.p. = 미래완료 수동(그때까지 ~된 상태일 것이다). 부정어 nor가 절 앞에 와서 will + 주어 + be 도치. nor it will be로 쓰면 비문.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mpunity	처벌받지 않음	exemption	punishment
vindictiveness	복수심	vengefulness	forgiveness
leniency	관용, 너그러움	mercy	severity
compound (v.)	악화시키다	aggravate	alleviate
amass	모으다	accumulate	squander
frugal	검소한	thrifty	extravagant
sinewy	강인한, 근육질의	muscular	flabby
superfluous	쓸데없는, 불필요한	unnecessary	essential
threadbare	닳아 해진	worn-out	brand-new
sumptuous	호화로운	lavish	modest
opulence	사치, 부유함	luxury	poverty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hypocrisy	위선	insincerity	sincerity
wrest	빼앗다	seize	—

내용 일치 떠나지 못한 이유 = 두려움 · 네로를 통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생각('어쩌면') · 사람의 선함을 찾음 · 자기 이익('아니면 어쩌면') / 디오 카시우스 = 브리타니쿠스가 죽은 뒤 세네카와 부루스는 목숨만 지키면 만족 · 재산 약 3억 세스테르티우스(주로 네로의 선물) · 탁자 약 500개(한 자료) · 3세기 두 얼굴 흉상(소크라테스) · 오른쪽 어깨 · 수일리우스 = 킨키우스 법 · 훗날 유죄 · 추방 · 답 = 『행복한 삶에 관하여』. **지칭** 139쪽 ¶6 their injustice의 their = emperors / 디오 인용 it(manage it) = the public business, they = Seneca and Burrus / 140쪽 ¶1 their salary · them = someone / 140쪽 ¶3 Socrates's = Socrates's toga, his line의 his = Seneca / 140쪽 ¶4 he was behind의 he = Seneca, he would later be convicted의 he = Suillius.

> **한 줄 요약** 세네카가 네로 곁을 떠나지 못한 데는 두려움과 선의 말고도 3억 세스테르티우스라는 자기 이익이 있었고, 수일리우스의 공격에 내놓은 답조차 그 자신이 지키지 못한 기준이었다.

18-9 얼마면 충분한가 — 피 묻은 부와 늦은 물러남 140쪽 ¶5 ~ 141쪽 ¶8

원문 위치 원서 140쪽 ¶5 ~ 141쪽 ¶8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40쪽 ¶5 둘째 문장	So was Cicero.	So + 동사 + 주어 도치
▲	140쪽 ¶5 셋째 문장	Neither of them grew rich in the service of someone as odious as Nero	Neither of them · as ~ as
◆	140쪽 ¶5 넷째 문장	Arius and Athenodorus were rewarded handsomely … but Augustus never murdered his own mother	15·16장 연결 · 통합 사고 후보
★	140쪽 ¶5 다섯째 문장	Cato loaned much of his money to friends without interest	인물 — 내용 일치 후보(13장 연결)
★	141쪽 첫 줄 둘째 문장	first, to have what is necessary, and second, to have what is enough	빈칸 후보
★	141쪽 ¶1 둘째 문장	something like forty million sesterces at high rates to Rome's British colony	숫자 — 서답형 후보
▲	141쪽 ¶1 셋째 문장	a brutal and violent rebellion broke out that eventually needed to be put down	떨어진 선행사 + 수동 to부정사
◆	141쪽 ¶2	it's hard not to see the drops of red on his	밑줄 의미 1순위 · his = his wealth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41쪽 ¶3 둘째 문장	his talent and brilliance were to blame	빈칸·요지 후보
▲	141쪽 ¶3 넷째 문장	difficulties that would have sunk anyone who wasn't a Stoic	would have p.p.(가정)
★	141쪽 ¶3 여섯째 문장	What he had never done was stop and question any of it	빈칸 1순위
★	141쪽 ¶4 첫 문장	By 62 AD	연도 — 내용 일치 후보
▲	141쪽 ¶4 둘째~셋째 문장	Perhaps there was some lost event ... Perhaps the moral conscience	추측 표현(단정 금지)
▲	141쪽 ¶5 셋째 문장	That would have been too much.	would have p.p.(그랬다면)
★	141쪽 ¶5 넷째 문장	There is no evidence of a principled resignation, as ... James Mattis would give	내용 일치 후보
◆	141쪽 ¶7	He'd gotten his hand bloody grabbing the money, and there would be blood getting rid of it.	밑줄 의미: 피로 얻은 돈은 피로 치른다

내용

카토는 부자였다. 키케로도 그랬다. 그러나 둘 다 네로처럼 혐오스러운 사람을 섬기며 부자가 되지는 않았다. 아리우스와 아테노도로스도 아우구스투스를 섬긴 대가로 후한 보상을 받았지만, 아우구스투스는 자기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다. 카토는 많은 돈을 친구들에게 이자 없이 빌려주었고, 재산을 불리는 것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세네카는 훗날 부의 알맞은 한계가 무엇이냐고 수사적으로 묻고는, 첫째는 필요한 것을 갖는 것, 둘째는 충분한 것을 갖는 것이라고 답한다. 분명 그는 그 '충분함'이라는 생각과 씨름했다. 그는 여러 해에 걸쳐 로마의 브리타니아 식민지에 4천만 세스테르티우스쯤을 높은 이자로 빌려주었다. 공격적인 돈놀이였고, 식민지가 빚에 허덕이자 잔혹하고 폭력적인 반란이 일어나 결국 로마 군단이 진압해야 했다. 세네카는 철학자의 부가 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의 부에 묻은 붉은 핏방울을 보지 않기는 어렵다. 왜 그는 스스로를 멈추지 못했을까. 그의 재능과 탁월함 탓이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들리지만 사실이다. 논란 많은 명성과 재산을 얻게 되는 수많은 야심가가 그렇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위대함을 위해 길러졌고 당대의 으뜸가는 인물이 되리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는 삶이 준 모든 기회를 잡아 최선을 다했고, 스토아가 아닌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라앉았을 어려움을 견뎌 냈으며, 좋은 시절도 즐겼다. 불평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계속 섬기고, 영향을 미치고 배운 대로 하려고 계속 애썼다. 그가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멈춰 서서 그 모든 것을 묻는 일, 이것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묻는 일이었다. 서기 62년이 되자 네로의 세계에서 날마다 해야 했던 타협을 부정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어쩌면 그를 마비 상태에서 깨운, 지금은 잊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탈루스에게 배운 도덕적 양심이 성취하려는 욕구와의 싸움에서 마침내 이겼는지도 모른다. 마침내, 드디어 세네카는 물러나려 했다. 그가 네로와 맞서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안다. 그것은 지나친 일이었을 것이다. 스토아에서 영감을 받은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가 시리아 정책을 두고 의견이 갈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낸 것 같은, 원칙에 따른 사임이었다는 증거는 없다. 대신 세네카는 황제를 만나, 이제 자신이 필요 없지 않느냐고, 자신은 늙고 건강이 나빠 은퇴할 때가 되었다고 설득하려 했지만 헛일이었다. 그는 더는 재산의 짐을 질 수 없으니 도와 달라고 네로에게 말하며, 자기 땅과 재산을 모두 가져가 달라고 청했다. 그는 깨끗이 은퇴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돈을 움켜쥐느라 손에 피를 묻혔으니,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도 피가 흐를 것이었다. 만남이 있은 지 며칠 뒤 네로는 또 한 명의 적을 죽였다.

어법

- **Cato was rich. So was Cicero. Neither of them grew rich in the service of someone as odious as Nero, however.** : So + be동사 + 주어 = …도 그랬다(도치). Neither of them = 둘 다 ~않다. as odious as Nero = 네로만큼 혐오스러운(원급 비교).
- **"What is the proper limit to wealth?" Seneca would later ask rhetorically. "It is, first, to have what is necessary, and second, to have what is enough."** : 보어 to부정사 둘(to have ~)이 first · second로 병렬. what =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rhetorically = 대답을 바라지 않는 수사적 질문으로.
- **when the colony struggled under the debt, a brutal and violent rebellion broke out that eventually needed to be put down by Roman legions** : 관계대명사 that의 선행사는 떨어져 있는 a rebellion — 동사 broke out이 짧아 관계절이 뒤로 밀렸다. need to be p.p. = ~될 필요가 있다(수동). put down = 진압하다.
- **Seneca had said that a philosopher's wealth should not be stained in blood, but it's hard not to see the drops of red on his.** : had said = 대과거. 가주어 it – 진주어 not to see(to부정사의 부정은 not을 to 앞에). his = his wealth(소유대명사).
- **he had persevered through difficulties that would have sunk anyone who wasn't a Stoic** : would have p.p. = (그런 어려움이었다면) 가라앉혔을 것이다 — 가정의 뜻이 주어 difficulties에 담겼다. who wasn't a Stoic = anyone을 꾸미는 관계절.
- **What he had never done was stop and question any of it, never asked where this was leading him and whether it was worth it.** : What절(~하는 것)이 주어. 보어 자리의 stop and question = to 없는 원형부정사(주어 what절이 do로 끝날 때 흔함). where · whether = asked의 목적어인 간접의문문.
- **Perhaps the moral conscience he had learned from Attalus finally won out in the battle with his desire to achieve.** : Perhaps = 저자의 추측(사실 단정 아님). conscience 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win out = 결국 이기다. desire to V.
- **Seneca met with the emperor and futilely attempted to convince Nero that he didn't need him anymore, that he was old and in bad health** : convince + O + that절 — that절 둘이 병렬. 첫 that절의 he = Nero, him = Seneca / 둘째 that절의 he = Seneca. futilely = 헛되이(실패했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odious	혐오스러운	detestable	admirable
handsomely	후하게	generously	meagerly
aggressive	공격적인	bold	cautious
rebellion	반란	revolt	obedience
groom (v.)	(어떤 자리에 맞게) 길러 내다	prepare	—
persevere	견뎌 내다	persist	give up
stupor	마비 상태, 무감각	daze	alertness
compromise (n.)	타협	concession	—
confront	맞서다	challenge	avoid
principled	원칙에 따른	ethical	unprincipled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resignation	사임	departure	—
futilely	헛되이	in vain	successfully
crave	간청하다(여기서)	beg for	—

내용 일치 카토 · 키케로도 부자였지만 네로 같은 사람을 섬기며 부자가 되지는 않음 · 아리우스 · 아테노도로스 = 아우구스투스에게서 후한 보상(어머니를 죽이지 않은 황제) · 카토 = 친구들에게 무이자 대출 · 부의 한계 = 필요한 것 → 충분한 것 · 브리타니아 식민지 대출 약 4천만 세스테르티우스(높은 이자) → 반란 · 로마 군단 진압 · 62 AD 물러나려 함 · 네로와 맞서지 않음 · 원칙에 따른 사임의 증거 없음(매티스와 대비) · 재산을 모두 가져가 달라 · 며칠 뒤 또 한 명의 적. **밑줄 의미** the drops of red on his = 브리타니아 반란의 피가 묻은 그의 부 / What he had never done was stop and question = 멈춰 서서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음 / there would be blood getting rid of it = 피로 얻은 돈은 내려놓을 때에도 피를 부른다.

> **한 줄 요약** 부의 한계를 '충분함'으로 정한 세네카는 브리타니아에 돈을 빌려줘 피 묻은 부를 쌓았고, 한 번도 멈춰 묻지 않다가 62년에야 물러나려 했지만 그마저 쉽지 않았다.

18-10 대화재와 '폭군의 스승', 공자가 먼저 내린 결론 141쪽 ¶9 ~ 142쪽 ¶6

원문 위치 원서 141쪽 ¶9 ~ 142쪽 ¶6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41쪽 ¶9 첫 문장	In 64 AD, the Great Fire … more than two-thirds of the city	연도·숫자 — 서답형 후보
▲	141쪽 ¶9 둘째 문장	One rumor spread that Nero had started the fire himself, or at least allowed it to burn	동격 that + 소문(단정 아님)
▲	141쪽 ¶9 셋째 문장	His reputation as a dilettante and a psychopath were fertile seeds	주어와 동사의 수(원서 표기 were)
★	141쪽 ¶9 셋째 문장	Nero found a scapegoat: the Christians	내용 일치 후보
▲	141쪽 ¶9 넷째 문장	How many he ordered to be rounded up and killed we do not know	목적어(간접의문문) 문두
★	142쪽 첫 줄 둘째 문장	Saul of Tarsus, whom we know today as Saint Paul	인물 — 서답형 후보
◆	142쪽 ¶1 둘째 문장	Tyrannodidaskalos—tyrant teacher.	밑줄 의미 1순위
▲	142쪽 ¶1 여섯째 문장	Hadn't he shaped Nero into the man he had now clearly revealed himself to be?	부정 의문(수사) + reveal oneself to be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42쪽 ¶1 일곱째 문장	it was hard to argue that Seneca hadn't lent credibility and protection	가주어 + 과거완료
★	142쪽 ¶2 첫 문장	The Blood of the Martyrs, Naomi Mitchison's haunting 1939 novel	책·연도 — 내용 일치 후보
★	142쪽 ¶3 셋째 문장	When the state has the Way, accept a salary; ... to accept a salary is shameful	주장 1순위(공자)
▲	142쪽 ¶3 넷째 문장	It took Seneca much longer than Confucius to come to this conclusion	It takes + 사람 + 시간 + to V
◆	142쪽 ¶3 다섯째 문장	the shame was obvious the first time his boss tried to murder his mother	주장 후보: 저자의 판단
★	142쪽 ¶4 첫 문장	not for nearly fifteen years of service with Nero	숫자 — 내용 일치 후보
★	142쪽 ¶5 셋째 문장	an essay titled On Leisure, published after he retired	책 제목 — 서답형 후보
▲	142쪽 ¶6 첫 문장	Only belatedly did it occur to a striver like Seneca that	Only + 부사 도치 + it occur to ~ that

내용

서기 64년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고, 거센 바람을 타고 도시의 3분의 2 넘게를 태우게 된다. 네로가 직접 불을 질렀거나, 적어도 수도를 마음대로 다시 짓기 위해 엿새 동안 타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아마추어이자 사이코패스라는 평판이 이런 음모론의 기름진 씨앗이 되었고, 네로는 재빨리 희생양을 찾았다. 기독교인이었다. 그가 몇 명을 잡아들여 죽이라고 명령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은 크리시포스와 안티파트로스와 아테노도로스를 낳은 바로 그 지적 토양, 타르소스 출신의 뛰어난 철학자였다. 그는 앞서 클라우디우스 치세에 세네카의 형제 덕분에 죽음을 면한 적이 있었다. 오늘날 성 바울로 알려진 타르소스의 사울이 네로가 쌓은 시체 더미에 더해졌다. 피가 흐르고 불이 타오르는 동안 세네카가 죄책감 말고 무엇을 느낄 수 있었을까. 티라노디다스칼로스, 곧 '폭군의 스승'.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사실 아니었던가. 그가 한 일이 바로 그것 아니었던가. 그가 네로를 지금 분명히 드러난 그런 사람으로 빚어낸 것 아니었던가. 적어도 세네카가 네로 정권에 신뢰와 보호를 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웠다. 그 어두운 날 세네카가 느낀 것은 어쩌면 절망이었을 것이다. 그토록 오래 막으려 한 것이 이제 터져 나오고 있었다. 네로 궁정의 기독교인 박해를 다룬 나오미 미치슨의 1939년 소설 『순교자들의 피』에서 한 스토아는, 우리는 점잖은 사람이라면 섬겨서는 안 될 나라를 섬기며 평생을 보냈고 이제 우리가 한 일을 볼 만큼 늙었다고 말한다. 세네카보다 몇 세기 앞서 중국에서는 공자가 군주들의 스승이자 조언자였다. 그도 세네카와 같은 춤을 추며 실용적인 권력의 세계 안에서 철학자가 되려 했다. 그의 균형 원칙은 이랬다. 나라에 도(道)가 있으면 봉록을 받고, 나라에 도가 없는데 봉록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세네카가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공자보다 훨씬 오래 걸렸다. 변명할 수 없는 일이다. 상관이 처음 어머니를 죽이려 했을 때 그 부끄러움은 분명했다. 적어도 덕을 훈련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했어야 했다. 그러나 세네카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네로를 섬긴 거의 15년 동안 그랬다. 시간이 지나 그는 공자의 말을 되풀이하듯, 나라가 도울 수 없을 만큼 썩고 악이 그것을 완전히 지배한다면 현자는 헛되이 애쓰거나 쓸모없는 노력에 힘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쓰게 된다. 그러나 그는 너무 오랫동안 바로 그렇게 해 왔다. 할 수 있는 만큼 물러난

세네카는 글쓰기에 온전히 몸을 돌렸다. 은퇴한 뒤 펴낸 놀라운 에세이 『여가에 관하여』에서 그는 자신의 복잡한 경험과 씨름하는 듯하다. 그는 인간의 의무는 동료 인간에게 쓸모 있는 것,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에게, 안 되면 몇 사람에게, 그것도 안 되면 이웃에게, 그마저 안 되면 자신에게 쓸모 있는 것이라고 썼다. 남을 도울 때 인류 전체의 이익을 진전시키기 때문이다. 세네카 같은 야심가는 뒤늦게야, 글을 쓰거나 그저 집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조용한 방식으로도 동료 시민에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후세를 위해 일하며 그들에게 도움이 될 생각을 적고 있다고, 자신이 늦게야 찾은 바른길을 남에게 가리키며 군중이 좋아하는 것과 우연의 선물을 피하라고 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미래 세대와 대화하는 지금이 법정에서 변호인으로 서거나 유언장에 도장을 찍거나 원로원에서 힘을 보탤 때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하고 있다는 아이러니도 짚었다.

어법

- **One rumor spread that Nero had started the fire himself, or at least allowed it to burn for six days so that he could rebuild the capital as he liked.** : that절 = rumor의 내용을 밝히는 동격절(주어와 동격절 사이에 동사 spread가 끼었다). had started와 (had) allowed 병렬. allow + O + to V. so that S could V = 목적. 원서는 '소문'이라고만 한다.
- **His reputation as a dilettante and a psychopath were fertile seeds for these conspiracy theories** : 주어 His reputation은 단수인데 원서는 were를 썼다 — as 뒤 두 명사에 끌린 표기로 보인다. 어법 문제라면 was가 맞다.
- **How many he ordered to be rounded up and killed we do not know** : know의 목적어인 간접의문문(How many S V)이 문두로 나간 구조(= We do not know how many he ordered ~). order + O + to be p.p.에서 목적어가 how many가 되어 앞으로 나갔다: 몇 명을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명령했는지.
- **Hadn't he shaped Nero into the man he had now clearly revealed himself to be?** : 부정 의문문 = 수사적 질문(그렇지 않았는가 → 그랬다). shape A into B. the man 뒤 관계대명사 생략: he had revealed himself to be the man.
- **"When the state has the Way, accept a salary; when the state is without the Way, to accept a salary is shameful."** : 앞 절은 명령문, 뒤 절은 to부정사 주어(to accept a salary) + is. 같은 구절(accept a salary)을 명령과 주어로 바꿔 대구를 만들었다.
- **It took Seneca much longer than Confucius to come to this conclusion.** : It takes + 사람 + 시간 + to V = ~가 …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much = 비교급 강조. than Confucius (did).
- **the shame was obvious the first time his boss tried to murder his mother ... at least it should have been to someone trained in virtue** : the first time + 절 = 처음 ~했을 때(접속사처럼). should have p.p. = ~했어야 했다(실제로는 아님). trained in virtue = someone을 꾸미는 과거분사구.
- **Only belatedly did it occur to a striver like Seneca that one can contribute to his fellow citizens in quiet ways too** : Only + 부사가 문두 → did + 주어 + 원형 도치. it occurs to A that ~ = A에게 ~라는 생각이 떠오르다(it = 가주어, that절 = 진주어).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capegoat	희생양	fall guy	—
fertile	기름진	fruitful	barren
spawn (v.)	낳다	produce	—
credibility	신뢰성	trustworthiness	—
haunting	잊히지 않는	unforgettable	forgettable
pragmatic	실용적인	practical	idealistic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nexcusable	변명할 수 없는	unforgivable	excusable
rotten	썩은	corrupt	sound
dominion	지배	control	—
in vain	헛되이	fruitlessly	—
leisure	여가	free time	toil
belatedly	뒤늦게	late	promptly
throng	군중	crowd	—

내용 일치 64 AD 대화재 · 3분의 2 넘게 · 소문 = 네로가 불을 냈거나 6일 동안 내버려 둠 · 희생양 = 기독교인 · 몇 명인지 모름 · 타르소스의 사울(바울) — 앞서 세네카의 형제 덕분에 죽음을 면함 · '폭군의 스승' · 미치슨의 1939년 소설 · 공자 = 군주의 스승 · 도가 없는 나라의 봉록은 부끄럽다 · 네로를 섬긴 약 15년 · 『여가에 관하여』 = 은퇴 뒤 펴냄. **밑줄 의미** Tyrannodidaskalos = 폭군을 길러 낸 스승이라는 비난 / danced the same dance = 권력 세계 안에서 철학자로 살려는 같은 줄타기 / the gifts of Chance = 우연(운명)이 주는 부와 명성 — 피해야 할 것.

> **한 줄 요약** 대화재와 박해 속에서 '폭군의 스승'이라 불린 세네카는 공자보다 훨씬 늦게 도가 없는 나라를 섬기는 부끄러움을 깨닫고, 글로 후세를 돕는 길로 돌아섰다.

18-11 펜으로 닿는 후세, 스승에게 돌아오는 범죄 142쪽 ¶7 ~ 144쪽 ¶1

원문 위치 원서 142쪽 ¶7 ~ 144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42쪽 ¶7 첫 문장	not just for his friend Lucilius, ... but also for publication	인물 — 서답형 후보
▲	143쪽 첫 줄	it could also help assure him the "immortal" fame he still craved	help + 원형 + 4형식
★	143쪽 첫 줄 둘째 문장	Succeeding on both counts, this collection, known as Moral Letters	책 제목 · 분사구문의 주어
★	143쪽 ¶1 첫 문장	Like Cicero, Seneca would spend three years (62–65 AD)	12장 연결 · 숫자
▲	143쪽 ¶1 둘째 문장	We can imagine him liking the symmetry	imagine + O + -ing · 추측
▲	143쪽 ¶1 넷째 문장	"My days have this one goal, as do my nights,"	as + 대동사 + 주어 도치
★	143쪽 ¶1 다섯째 문장	in old age I take care to die well	요지 후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43쪽 ¶1 일곱째 문장	more than half of his writings did not survive	숫자 — 내용 일치 후보(윌슨 추정)
◆	143쪽 ¶2 셋째 문장	an early feeling of not being enough, of not being worth much	밑줄 의미 · perhaps(추측)
◆	143쪽 ¶2 여섯째 문장	"I can argue with Socrates, doubt with Carneades, find peace with Epicurus	무관 문장 후보(인물 나열)
▲	143쪽 ¶3 둘째 문장	While we don't have any evidence that he directly questioned his work for Nero	동격 that
★	143쪽 ¶3 셋째 문장	Thyestes, ... two brothers battling for the kingdom of Mycenae	책 제목 — 서답형 후보
◆	143쪽 ¶4	"Crimes often return to their teacher."	밑줄 의미 1순위
★	143쪽 ¶6 넷째 문장	"the greatest empire is to be emperor of oneself."	빈칸·주장 1순위
★	144쪽 첫 줄	again by poison—was spoiled by Seneca's meager diet	내용 일치 후보(타키투스)
★	144쪽 ¶1 첫~둘째 문장	Thrasea ... his brother's son, Lucan ... Seneca was not directly involved	인물 · 내용 일치 1순위(단정의 정도)

내용

이 봉사의 주된 형태는 철학 편지였다. 편지는 받는 사람인 친구 루킬리우스만이 아니라 많은 독자에게 펴낼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로마의 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적어도 펜으로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것은 그가 여전히 갈망하던 '불멸의' 명성을 보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두 가지 모두에서 성공해, 『도덕 서한』으로 알려진 이 모음집은 지금도 수많은 언어로 해마다 수천 부씩 팔린다. 키케로처럼 세네카도 3년(서기 62~65년)을 들여 모든 편지와 책을 마무리했고, 문학계는 이를 영원히 고마워한다. 그가 그토록 이름난 선배와의 대칭을 좋아했으리라고, 자신의 은퇴라는 연극이 어떻게 비칠지까지 생각했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다. 영리한 선택이기도 했다. 글쓰기로 돌아선 것은 점점 더 변덕스러워지는 네로의 싸움판에서 비켜서 있는 편리한 방법이었다. 그는 낮도 밤도 오직 하나의 목표, 오래된 악을 끝내는 일을 향한다고, 늙기 전에는 잘 사는 데 마음을 썼고 늙어서는 잘 죽는 데 마음을 쓴다고 썼다. 안타깝게도 이 시기 앞뒤에 쓴 그의 작품은 너무 많이 사라졌다. 에밀리 윌슨은 모든 정치 연설과 개인 편지, 인도와 이집트에 관한 저작을 포함해 그의 글 절반 넘게가 남지 않았다고 추정한다. 위험이 드리워 있었는데도 이 시기는 그에게 기쁨과 창작의 시간이었다. 그는 붐비는 체육관 위층 방에 앉아 온갖 소음을 흘려듣고 철학에만 몰두한 일을 썼다. 시간이 지나며 자기 자신에게 더 좋은 친구가 되어 가는 과정도 썼다. 어쩌면 자신의 야망이 일찍부터 품은 '부족하다', '별 가치가 없다'는 느낌에서 비롯되었을지 모른다는 고백이다. 그는 한 편지에서 철학에 시간을 내는 사람만이 참으로 살아 있다고 했다. 이제 그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고, 무척 살아 있었다. 코르시카 유배 중에 썼듯, 그는 날마다 소크라테스와 논쟁하고, 카르네아데스와 의심하고, 에피쿠로스와 평화를 찾고, 스토아와 함께 인간의 본성을 이기고, 키니코스학파와 함께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다. 세네카는 철학을 거울을 보며 자기 결점을 긁어내는 길로도 말했다. 그가 글에서 네로를 위한 일을 직접 문제 삼았다는 증거는 없지만(섬기는 것은 그의 정치적 신조의

일부였다. 우리 시대의 매티스 장군에게 그렇듯), 그가 자기 삶이 흘러간 모습과 깊이 씨름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세네카가 네로 같은 인물을 가장 직접 다룬 글은 미케네 왕국을 두고 싸우는 두 형제의 어둡고 불편한 이야기인 희곡 『티에스테스』였다. 오늘날 이 이야기를 세네카와 네로의 대화, 곧 권력의 유혹과 그것을 좇으며 인간이 서로에게 하는 끔찍한 일에 대한 경고로 읽지 않기는 불가능하다. 이 희곡에서 가장 많은 것을 말해 주는 대사는 세네카가 고통스럽게 깨닫게 된 사실이다. 범죄는 흔히 그 스승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그는 『티에스테스』에서 왕국 없이 견딜 수 있는 것이 거대한 왕국이라고 쓴다. 이것도 그는 고통스럽게 겪고 있었다. 삶에서 세 번째로 세네카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루킬리우스에게 쓰게 되듯, 그는 가장 큰 제국은 자기 자신의 황제가 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오래 걸려 온 깨달음이었다. 세네카는 철학이 하늘 위 세계나 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알게 된다. 타키투스에 따르면, 네로가 처음 세네카를 죽이려 한 시도는 이번에도 독이었는데 세네카의 빈약한 식사가 그것을 망쳤다. 예전의 사치스러운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주로 들과일과 졸졸 흐르는 시냇물만 먹는 사람을 죽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이 유예도 오래가지 않았다. 서기 65년, 스토아 원로원 의원 트라세아와 세네카의 조카 루카누스를 포함한 음모자들이 네로의 목숨을 노리기 시작했다. 세네카는 카토나 브루투스처럼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키케로보다는 용감했다. 한 소문에 따르면 음모자들은 네로가 죽은 뒤 세네카에게 다시 나라를 맡길 계획이었다. 그의 관여는 그를 구원하기에 충분할까. 마침내 자신이 만드는 데 한몫한 괴물과 단호하게 갈라설 뜻이 있었다는 것으로? 음모가 실패하자 세네카는 더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을 감싸려고 목숨을 걸었다.

어법

- **philosophical letters, intended not just for his friend Lucilius, to whom they were addressed, but also for publication to a wide audience** : intended ~ = letters를 꾸미는 과거분사구. not just A but also B. to whom = 전치사 + 관계대명사(they were addressed to him).
- **it could also help assure him the "immortal" fame he still craved** : help + 원형(assure). assure + 간접목적어(him) + 직접목적어(fame) = ~에게 …을 보장하다. fame 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따옴표는 '불멸'이라는 말에 거리를 둔 표시.
- **Succeeding on both counts, this collection, known as Moral Letters, sells many thousands of copies a year** :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 = 주절 주어 this collection(두 목표에서 모두 성공한 것은 편지 모음). known as ~ = 삽입 과거분사구. a year = 1년에(배분).
- **We can imagine him liking the symmetry with such an illustrious peer, thinking even of how the theatrics of his retirement would play.** : imagine + O + -ing = O가 ~하는 것을 상상하다(저자의 상상). thinking ~ = 부연 분사구문. how절 = of의 목적어인 간접의문문, play = (보는 이에게) 비치다.
- **"My days have this one goal, as do my nights,"** : as + 대동사 do + 주어 my nights(도치) = 밤도 그렇듯이. as my nights do로 써도 맞다(이 도치는 선택).
- **"Before I became old, I took care to live well; in old age I take care to die well."** : take care to V = 애써 ~하다. 과거(took)와 현재(take)를 맞세워 삶의 두 시기를 대비했다.
- **an admission, perhaps, that his ambition may have been fueled by an early feeling of not being enough, of not being worth much** : an admission = 앞 내용 전체의 동격. 동격 that절. may have been p.p. = ~되었을지도 모른다(과거 추측 · 수동). 동명사의 부정 not being, of ~ 두 구가 병렬.
- **It was hard to kill someone who had so turned away from their former life of opulence that he was eating mostly wild fruits and water** : 가주어 it – 진주어 to kill. so ~ that 결과 구문에서 so가 동사(turned away) 앞에 왔다. their = someone을 받는 단수 they의 소유격.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ymmetry	대칭	balance	asymmetry
illustrious	저명한	eminent	obscur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theatrics	연극적 행동	dramatics	—
volatile	변덕스러운, 폭발하기 쉬운	unstable	stable
tune out	흘려듣다	ignore	pay attention to
admission	고백, 인정	confession	denial
scrape off	긁어내다	remove	—
telling (adj.)	많은 것을 말해 주는	revealing	—
ethereal	하늘 위의, 천상의	heavenly	earthly
meager	빈약한	scanty	ample
burbling	졸졸 흐르는	babbling	—
reprieve	유예	respite	—
redeem	구원하다, 만회하다	save	condemn

내용 일치 철학 편지 = 루킬리우스에게 보내고 출판도 염두 · 『도덕 서한』 = 지금도 해마다 수천 부 · 키케로처럼 3년(62~65 AD) · 윌슨 = 저작 절반 넘게 사라졌다고 추정(정치 연설 · 개인 편지 · 인도와 이집트 저작) · 체육관 위층 방 · 소크라테스 · 카르네아데스 · 에피쿠로스 · 스토아 · 키니코스 = 코르시카에서 쓴 말 · 『티에스테스』 = 미케네 왕국을 다투는 두 형제 · 첫 독살 실패 = 빈약한 식사(타키투스) · 65 AD 음모 = 트라세아 · 루카누스, 세네카는 직접 가담하지 않음 · 복귀 계획은 '한 소문'. **밑줄 의미** "Crimes often return to their teacher." = 가르친 악은 결국 스승에게 돌아온다(폭군의 스승) / the greatest empire is to be emperor of oneself = 진짜 권력은 자기를 다스리는 것 / not being enough = 야망의 뿌리였을지 모르는 '부족하다'는 느낌.

> **한 줄 요약** 물러난 세네카는 편지와 책으로 후세에 닿으며 범죄가 스승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고, 직접 가담하지 않은 65년 음모에서 더 적극적인 가담자들을 감싸려고 목숨을 걸었다.

18-12 본보기라는 유산, 쉽게 오지 않은 죽음 144쪽 ¶2 ~ 145쪽 ¶3

원문 위치 원서 144쪽 ¶2 ~ 145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44쪽 ¶2 둘째 문장	Nero, a coward like Hitler in his last days, sent goons to demand Seneca's suicide	내용 일치 후보
◆	144쪽 ¶2 셋째 문장	There would be no clemency, despite the essay	18-6 『관용론』과 수미상관
▲	144쪽 ¶3 첫 문장	he managed to summon a courage and a clarity that had long escaped him	manage to V + 관계절(escape = 빠져나가다)
★	144쪽 ¶3 둘째 문장	He asked for something to write his will upon and was rejected.	순서 배열 1순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44쪽 ¶3 셋째 문장	the only thing that mattered: his life, his example	요지·빈칸 1순위
▲	144쪽 ¶4 첫 문장	It would seem absurd to say that …, but in a way, he had.	가주어 + 대동사 had (practiced)
▲	144쪽 ¶4 셋째 문장	He seized the opportunity to practice what he had so long preached.	what + 과거완료(preach ↔ practice)
★	144쪽 ¶4 여섯째 문장	After a mother's and a brother's murder, … a guardian and a tutor	지칭·순서 후보
◆	144쪽 ¶5 다섯째 문장	all Nero was doing was moving up the timeline	밑줄 의미: 죽음을 앞당겼을 뿐
★	144쪽 ¶5 여섯째 문장	hug his wife, Paulina, and urge her calmly not to grieve	인물 — 서답형 후보
▲	144쪽 ¶6 넷째 문장	Nero's guards—apparently on Nero's orders— rushed in to save Paulina	apparently(추측) · 결과
▲	144쪽 ¶7 첫 문장	death did not come as easily as he would have hoped	as ~ as + would have p.p.
★	145쪽 첫 줄 셋째 문장	"evil herself drinks the largest portion of her own poison"	아탈루스 연결 · 빈칸 후보
★	145쪽 ¶1 넷째~다섯째 문장	a steam bath … Peter Paul Rubens and Jacques-Louis David	장소·인물 — 내용 일치 후보
★	145쪽 ¶2	disposed of quietly without funeral rites, per a request he had made long before	내용 일치 후보(타키투스)
◆	145쪽 ¶3 둘째 문장	crimes don't only return upon their teachers but also to the people and things they love	143쪽 ¶4와 수미상관

내용

이 선택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최후의 히틀러처럼 겁쟁이였던 네로는 깡패들을 보내 세네카에게 자살을 요구했다. 오래전 세네카가 제자를 위해 쓴 글이 있었는데도 관용은 없었다. 세네카의 삶은 모순이 얽힌 복잡한 미로였지만, 이제 끝을 마주한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비켜 갔던 용기와 명료함을 끌어냈다. 유언장을 쓸 것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에게 돌아서서, 자신이 남길 수 있는 유일하게 중요한 것, 곧 자신의 삶과 본보기를 물려주겠다고 했다. 가슴이 미어지는 장면이었고, 친구들은 그 말에 무너져 울었다. 세네카가 이 순간을 연습해 왔다고 말하면 터무니없게 들리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랬다. 키케로가 말했듯 그의 모든 글과 철학은 죽음을 향해 왔고, 이제 죽음이 왔다. 그는 오래 설교해 온 것을 실천할 기회를 잡았다. 그는 우는 친구들과 역사의 청중을 부드럽게 꾸짖었다. 철학의 격언은, 다가올 악에 맞서 여러 해 공부한 대비는 어디 있느냐고, 네로의 잔인함을 누가 몰랐느냐고, 어머니와 형제를 죽인 뒤에는 보호자이자 스승을 없애는 일만 남았다고. 얼마 전 그는 루킬리우스에게, 폭군이나 정복자가 갑자기 우리를 죽음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실은 대단한 힘이 아니라고 썼다. 태어난 날부터 우리는 그리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세네카는 마지막 시간을 차분히 기다리려면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결코 의식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사형을 선고받았다. 세네카에게 네로가 하는 일은 그 일정을 앞당기는 것뿐이었다. 이것을 알았기에 그는 이제 아내 파울리나를 껴안고, 자신을 위해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자신 없이 살아가라고 차분히 당부할 수 있었다. 다른 많은 스토아 여성처럼 그녀는 시키는 대로 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대신 그와 함께 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팔의 동맥을 그어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네로의 명령을 받은 듯한 경비병들이 달려 들어와 파울리나를 살렸고, 그녀는 그 뒤 몇 해를 더 살았다. 세네카에게 죽음은 바란 만큼 쉽게 오지 않았다. 빈약한 식사가 피의 흐름을 늦춘 듯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간직해 온 독을 기꺼이 마셨다. 그 전에 신들에게 술을 조금 따라 바쳤다. 그 순간 그는 오래전 아탈루스가 한 말, 악은 자기 독의 가장 큰 몫을 스스로 마신다는 말을 떠올렸을까. 그 말은 세네카에게 맞아떨어지고 있었고, 머지않아 네로에게도 맞아떨어진다. 죽음에 관해 그토록 많이 쓴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이 그리 순순히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이것이 그를 답답하게 했을까. 아니면 그는 역사에 한쪽 눈을 두고, 운명이 오래 생각해 온 장면을 늘이고 있음을 알았을까. 독이 듣지 않자 그는 증기탕으로 옮겨졌고, 열기와 짙은 공기가 마침내 그의 숨을 거두었다. 페테르 파울 루벤스와 자크루이 다비드의 작품을 비롯해, 세네카의 죽음을 그린 그림은 한 장르를 이룬다. 그림들은 하나같이 세네카를 어쩌면 그 자신이 보이고 싶어 했을 모습, 더는 뚱뚱하고 부유하지 않은, 다시 마르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그리는 듯하다. 방 안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울부짖지만 세네카는 차분하다. 살아서는 이르지 못한 완벽한 스토아가 마침내 되어 세상을 떠난다. 얼마 뒤 그의 시신은 오래전 그가 부탁한 대로 장례 없이 조용히 처리되었다. 타키투스에게 이것은 그가 훌륭한 스토아답게 부와 권력의 절정에서도 삶의 끝과 영원한 유산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그가 삶에서 얻은 다른 모든 것은 사라졌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책만 빼고. 그리고 1년이 안 되어 네로는 그의 형제도 앗아 간다. 범죄는 스승에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사랑하는 사람과 것들에게도 돌아오기 때문이다.

어법

- **There would be no clemency, despite the essay Seneca had written for his student all those years ago.** : despite + 명사(전치사 — despite of는 비문). the essay 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had written = 대과거(『관용론』).
- **he managed to summon a courage and a clarity that had long escaped him** : manage to V = 가까스로 ~해내다. escape + 사람 = ~에게서 빠져나가다(그에게 없던). 관계절이 꾸미는 특정한 용기라서 추상명사에 a가 붙었다.
- **It would seem absurd to say that Seneca had practiced for this moment, but in a way, he had.** : 가주어 it – 진주어 to say. 끝의 had = had practiced for this moment를 줄인 대동사.
- **He seized the opportunity to practice what he had so long preached.** : opportunity to V(형용사적 to 부정사). what = 관계대명사(설교해 온 것). preach ↔ practice 대비(말한 것을 실천하다).
- **"Who knew not Nero's cruelty?"** : knew not = did not know의 옛 문체(일반동사 뒤 not). 수사의문문 = 누구나 알았다.
- **Seneca believed that if we wanted "to be calm as we await that last hour," we must never let the fact of our mortality slip from consciousness.** : let + O + 원형(slip). the fact of ~ = ~라는 사실. believed 뒤인데도 must를 그대로 썼다(늘 참인 당위).
- **For Seneca, death did not come as easily as he would have hoped. His meager diet seemed to have slowed his blood flow.** : not as ~ as = ~만큼 …하지 않다. would have hoped = (바랄 수 있었다면) 바랐을. seem to have p.p. = 완료 부정사(본동사보다 앞선 일) + seem(추측).
- **Invariably they seem to show Seneca as perhaps he wished to be seen, no longer fat and rich but lean and dignified again.** : show A as ~ = A를 ~한 모습으로 보여 주다. wish to be seen = 수동 to부정사. no longer A but B. seem · perhaps = 저자의 추측 표현.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eal (one's fate)	(운명을) 결정짓다	determine	—
goon	깡패	thug	—
maze	미로	labyrinth	—
summon (courage)	(용기를) 끌어내다	muster	—
bequeath	물려주다	leave	inherit
heartwrenching	가슴이 미어지는	heartbreaking	heartwarming
absurd	터무니없는	ridiculous	reasonable
chide	꾸짖다	scold	praise
maxim	격언	saying	—
mortality	죽을 운명	—	immortality
libation	(신에게 바치는) 술	offering	—
hysterical	울부짖는, 이성을 잃은	frantic	calm
dignified	위엄 있는	stately	undignified

내용 일치 자살 명령 = 네로가 깡패를 보냄 · 『관용론』에도 관용은 없음 · 유언장 = 거절당함 · 친구들에게 물려준 것 = 삶과 본보기 · 꾸짖음(어머니 · 형제 살해 뒤 보호자이자 스승) · 루킬리우스에게 = 태어난 날부터 끌려감 · 파울리나 = 함께 죽으려 함 → 경비병이 살림(네로의 명령을 받은 '듯') · 몇 해 더 삶 · 독약 → 증기탕 · 루벤스 · 다비드 · 장례 없음(오래전 부탁, 타키투스) · 1년 안에 형제도 잃음. **지칭** 144쪽 ¶3 they broke down의 they = his friends / ¶5 her = Paulina / ¶6 she = Paulina, him = Seneca / 145쪽 첫 줄 her own poison의 her = evil(의인화) / 145쪽 ¶1 they = the paintings / ¶3 his brother = 세네카의 형제, they love의 they = teachers.

> **한 줄 요약** 자살 명령 앞에서 세네카는 마침내 용기와 명료함을 끌어내 삶이라는 본보기를 남겼고, 쉽게 오지 않는 죽음 끝에 살아서는 되지 못한 차분한 스토아로 떠났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Lives of the Stoics [Chapter 18 SENECA]

범위	Seneca the Striver (원서 PDF 131~145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Long before Seneca, Confucius served in China as a teacher and counselor to princes. He, too, tried to remain a philosopher inside the practical world of power, guided by a simple rule: if a state follows the Way, take its pay; if it has abandoned the Way, taking its pay is a disgrace. Seneca reached this conclusion far later than Confucius, and the delay is inexcusable. Anyone trained in virtue should have seen the disgrace the moment his employer first tried to kill his own mother, yet Seneca failed to see it through almost fifteen years of service. A good person must stop lending his talent to a government that has clearly lost its moral direction.

① A philosopher should never give advice to rulers.
② Confucius and Seneca reached the same conclusion at about the same time.
③ Taking a salary from any government is always shameful.
④ A person trained in virtue should stop serving a state that has lost its moral way.
⑤ Long service to a cruel ruler is the surest way to reform him.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Having seen how his mother and stepfather behaved, the young emperor had already absorbed some ugly lessons, and absolute power would only make things worse. Seneca, his teacher, tried to steer him in a better direction. Among the first gifts he presented to the new ruler was a work of his own, De Clementia, which described the path of a good king. Today mercy may sound like an obvious idea, but at that time it was a radical piece of advice. According to the classicist Robert A. Kaster, Greek did not even have a word for clemency. Earlier thinkers had praised self-restraint and gentleness; Seneca went further, asking how the powerful should treat the powerless, since that choice shows who they truly are.

① Why Greek Thinkers Valued Gentleness Above All
② Clemency: Seneca's New Lesson on Using Power
③ How Nero Learned Cruelty from His Parents
④ A Greek Word That Seneca Brought Back to Life
⑤ Absolute Power: The Best Teacher of Kings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Many Stoics wrote that fame after death was worth nothing, but Seneca longed for it, labored for it, and even performed for it, up to the dramatic way he ended his life. People of his own day may have thought Cicero the finer writer and speaker, yet today far more people read Seneca. No one has described more clearly what it is like to be a human being searching for calm, meaning, happiness, and wisdom. Over the centuries, his essays and letters have probably reached more readers than those of all the other Stoics put together. This is exactly the result he had been aiming for from the start.

① Seneca, unlike many Stoics, sought lasting fame and actually achieved it through his writing.
② Seneca's contemporaries rightly judged him to be a better writer than Cicero.
③ The Stoics agreed that fame after death was the true goal of philosophy.
④ Seneca's writings are popular mainly because of his dramatic death.
⑤ Seneca wrote mostly about politics, which is why he is still read.

4. 밑줄 친 to walk a razor's edg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Seneca had no say over the illness that kept him in Alexandria for roughly a decade, but he could choose how to use that time, so he filled it with reading, writing, and rebuilding his strength. While he was there, word reached him about his beloved teacher. Attalus had somehow offended the emperor Tiberius, who seized his property and drove him out of Rome. The old Stoic would spend his remaining years in exile, scraping out a living by digging ditches. From his teacher's fate, Seneca was discovering that living as a thinker under the emperors meant having to walk a razor's edge, accepting that fortune was unpredictable and might turn cruel at any moment.

① to live in constant danger, where a single misstep could bring ruin
② to travel abroad for many years to protect one's health
③ to win the emperor's trust through careful flattery
④ to give up philosophy in order to survive at court
⑤ to sharpen one's arguments until no rival could answer them

5. 밑줄 친 a Faustian bargain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eneca was convinced that a Stoic had a duty to serve his country as well as he could, even when that country was an empire that had seen four rulers come and go in his lifetime. No doubt he was also ready to take almost any post that would free him from the miserable island where he had been trapped. But did he realize that he was entering into a Faustian bargain? The warning signs were there. Unlike Octavian, Nero showed little interest in learning and seemed to prefer the stage and music to the throne. He was cruel, spoiled, and unable to focus, which were hardly promising qualities in a future ruler. Yet the only other choice was going back to exile in Corsica.

① a fair agreement that benefits both sides equally
② a contract that frees a teacher from all responsibility
③ a promise to return to exile once the job was done
④ a secret plan to overthrow a cruel ruler
⑤ a deal that brings what one wants now at a terrible hidden cost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The calm did not last. Driven by suspicion and by the cruel streak ① he had inherited from his mother, Nero began to get rid of his rivals, the first being his brother Britannicus, killed with poison. ② He then forced his mother out and made several failed attempts to poison her. By 59 AD she was dead, and the restrained youth shown in Barrón's statue was free to commit any crime ③ his heart desired. Seneca noticed the turning point. While Arius had once urged Augustus to remove a rival Caesar, Seneca's task was the opposite: ④ he had to warn Nero that even the mightiest king could never kill every successor. But Nero would not listen, and in the end ⑤ he murdered every male of the Julio-Claudian line.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Agrippina, whose great-grandfather was Augustus, had big plans for her son Nero, who was then twelve. In 49 AD she married Claudius, the emperor who had followed Caligula, and persuaded him to adopt the boy. Soon afterward, as empress, she convinced her husband to call Seneca back from Corsica to be Nero's teacher, because she wanted the boy to benefit from Seneca's skill in politics, speech, and philosophy. So at fifty-three, Seneca, who had long been pushed to the edges of Roman life, found himself at the heart of the imperial court. Ironically, Agrippina wanted him to give Nero lessons in political strategy rather than Stoicism, much as Seneca's own father had hired Attalus for nearly everything except philosophy.

① 아그리피나는 결혼 전에 네로를 입양시켰다.
② 세네카를 코르시카에서 불러들이자고 처음 제안한 사람은 클라우디우스였다.
③ 아그리피나는 세네카가 네로에게 무엇보다 스토아 철학을 가르치기를 바랐다.
④ 세네카의 아버지는 아탈루스에게 철학만 가르쳐 달라고 했다.
⑤ 세네카는 쉰세 살에 황실 궁정의 중심으로 들어갔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Things went from bad to worse. Within less than two years, Seneca's father died at the age of ninety-two in 39 AD, Seneca married in 40 AD, and his first son died soon after. Only twenty days after the funeral, Claudius, who had succeeded Caligula, ordered him out of Rome. Why? No one is certain. It may have been a general campaign against philosophers, or there may have been an affair with Agrippina's sister Julia Livilla; the surviving accounts are unclear and full of rumor. Whatever the reason, he was charged with adultery, and in 41 AD he was sent to the remote island of Corsica. He would remain there for eight years, and though he wrote several works early on, loneliness slowly wore him down.

① 세네카의 아버지는 서기 39년 아흔두 살에 세상을 떠났다.
② 세네카는 아들을 묻고 20일 만에 칼리굴라에게 추방당했다.
③ 세네카가 추방된 진짜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④ 세네카는 서기 41년에 코르시카로 보내졌다.
⑤ 세네카는 유배 초기에 여러 작품을 썼지만 고립감에 차츰 지쳐 갔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In 31 AD, when Seneca returned to Rome after his long stay in Egypt, the lesson ① that fortune could turn cruel was driven home. His uncle died in a shipwreck on the voyage, and soon after arriving Seneca watched Sejanus, once a trusted advisor of Tiberius, ② condemned by the senators and ripped apart by a crowd. His family's connections ③ helped him win his first post, as quaestor. Later he told of Julius Canus, a Stoic ④ sentencing to death by Caligula, who calmly played chess while waiting and joked, as he was led off, that his friend could confirm he had been one piece ahead. Seneca admired not only the wit of the remark but also the fame ⑤ it earned.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Under Nero, Seneca grew very rich. In only a few years he gathered a fortune of roughly three hundred million sesterces, (A) [almost / most] of it given to him by the emperor himself. He was surely the wealthiest Stoic of his time and possibly the wealthiest Stoic who ever lived; one source claims he kept some five hundred matching citrus-wood tables, each on ivory legs, only for entertaining guests. Although most artworks show him as thin and tough, the only true image of him (B) [survive / survives] in a third-century double bust that pairs him with Socrates. Socrates's toga covers both shoulders, (C) [while / during] Seneca's leaves his right shoulder bare, and the face is that of a heavy man who had enjoyed many lavish meals.

	(A)	(B)	(C)
①	almost	survive	while
②	most	survives	while
③	most	survive	during
④	almost	survives	during
⑤	most	survive	while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To Attalus, progress meant much more than high grades or sounding clever. His teaching was as ① moral as it was scholarly. A champion of temperance, he taught Seneca to practice ② moderation in food and drink all his life, even persuading him to stop eating oysters and mushrooms, two treats prized at Roman tables. He mocked show and luxury as ③ lasting pleasures that would quickly fade and add nothing to real happiness, and he urged his pupil to be ④ content with very little. Above all, he taught that philosophy should make a student ⑤ better in real life: each day the student should carry home one good thing and become a sounder person, or at least move closer to it.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Why could Seneca not hold himself back? It sounds odd to blame his gifts and brilliance, yet that is the truth, as it is for many ambitious people. From birth he had been prepared for greatness. He seized every chance life offered and made the most of it; he survived hardships that would have crushed anyone without Stoic training; and he enjoyed the good years as well. He pressed on, serving and striving to make a difference and to do the work he had been trained for. The one thing he never did was _____.

① stop to ask where his path was leading and whether the price was worth paying
② work hard enough to deserve the success he had been given
③ seize the opportunities that life placed in front of him
④ enjoy the good times that came his way
⑤ prepare himself for greatness from an early age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He then begged Nero to lift that burden from him by accepting every one of his properties and his entire fortune.

At long last, Seneca tried to step away from the court. He did not openly challenge Nero, which would have asked too much of him. (①) Nor is there any sign of a resignation made on principle. (②) Instead, he went to the emperor and argued, without success, that Nero no longer needed him, since he was old, unwell, and ready to retire. (③) "The weight of my riches is more than I can carry," he said, asking for help. (④) All he wanted was to leave public life with clean hands. (⑤) But within days of their meeting, Nero killed yet another enemy.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Like Cicero, Seneca spent three years, from 62 to 65 AD, finishing his letters and books. ① Turning to writing was also a clever way to keep clear of Nero's growing unpredictability. ② Despite the danger hanging over him, these were years of joy and creative energy; he described sitting in rooms above a noisy gymnasium and shutting out the din to concentrate on philosophy. ③ In 55 AD, his brother Gallio had been made consul, and Seneca held the same office the following year. ④ He also wrote about slowly learning to be a kinder friend to himself. ⑤ He once claimed that only those who give their time to philosophy are fully alive, and now he was living proof of it.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Facing death at last, Seneca found a courage and clarity he had long lacked. When he asked for something on which to write his will, he was refused.

(A) Paulina, however, would not simply obey. She chose to die with him, and the two slit open the arteries of their arms. Nero's guards, apparently acting on orders, rushed in and saved her.

(B) So he looked to his weeping friends and declared that he could leave them only one thing of real value: the example of his life. Gently, he scolded them for forgetting the philosophy they had studied for years.

(C) Then, believing that Nero was only moving up a date set at birth, he embraced his wife, Paulina, and calmly urged her not to grieve too much but to go on living.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eneca could plainly see that Nero was not listening, yet he kept teaching him for years. He hoped that some of his lessons would sink in; he knew how much was at stake; he believed his task was to try to make Nero good; and he could not resist the chance to stand so close to power. In the end, he achieved little, but what is certain is that he tried. As the saying goes, a horse may be led to the water, but no one can make it drink. We are responsible for our own words and actions, not for whether others listen, and unlike the Epicureans, the Stoics regarded public life as an obligation.

→ Seneca went on teaching Nero for years, treating the effort as a(n) (A) _____, since a Stoic answers only for his own actions and cannot (B) _____ whether others choose to listen.

① mistake ..... control
② duty ..... ignore
③ game ..... decide
④ punishment ..... guarantee
⑤ duty ..... control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8)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Seneca came into the world in Corduba, Spain, around 4 BC. A serious lung illness sent him to Egypt, where he spent about ten years recovering, and he returned to Rome in 31 AD. Later the emperor Claudius banished him to the island of Corsica, where he wrote On Anger and dedicated it to his brother. Agrippina then had him called back to teach her son Nero. The only true likeness of Seneca is a double bust that he shares with Socrates. When conspirators plotted against Nero in 65 AD, Seneca took no direct part in it, yet after he tried to shield the plotters he was ordered to die, and his wife, Paulina, tried to die with him.

<QUIZ>

(1) To which island did Claudius banish Seneca?
Answer for (1): _____

(2) Which book did Seneca dedicate to his brother?
Answer for (2): _____

(3) Whom did Seneca teach at Agrippina's request?
Answer for (3): _____

(4) With which philosopher does Seneca share a double bust?
Answer for (4): _____

(5) Who tried to die with Seneca?
Answer for (5): _____

(6) Is it true or false that Seneca was directly involved in the plot of 65 AD?
Answer for (6): _____

(7) To which city did Seneca return in 31 AD?
Answer for (7): _____

(8) In which land did Seneca spend about ten years recovering from illness?
Answer for (8): _____

<보 기>

A. Attalus	N. Nero
B. Britannicus	O. On Anger
C. Corsica	P. Paulina
D. De Clementia	Q. Caligula
E. Egypt	R. Rome
F. Cato	S. Socrates
G. Gallio	T. True
H. Agrippina	U. Tiberius
I. False	V. Lucan
J. Julia Livilla	W. Thrasea
K. Claudius	X. Sextius
L. Lucilius	Y. Burrus
M. Corduba	Z. Zeno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죽은 뒤의 명성이 하찮다고 쓴 많은 동료 스토아와 달리, 세네카는 그것을 갈망했다. (Unlike + 명사, 계속적 who)

02 그는 카토가 누린 자유를 한 번도 들이마시지 못했다. (Never did + S + 원형)

03 그의 가르침은 학문만큼이나 도덕에 관한 것이었다. (as much A as B)

04 그들에게 호기심을 억누르게 하는 것은 당장은 편하지만 대가가 큰 경우가 많다. (동명사 주어 + 단수 동사)

05 그는 그 분노에 굴복하는 대신 그 힘을 책 한 권에 쏟았다. (rather than + 원형)

06 서기 50년의 세네카는 이 일이 또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다. (Little did + S + 원형)

07 세네카는 아무리 강한 왕이라도 모든 후계자를 죽일 수는 없다고 네로에게 일깨워야 했다. (remind + O + that / it is impossible for A to V)

08 우리가 통제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말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듣는지가 아니다. (what절 · whether절 대비)

09 봉급이 보지 않는 데 달려 있는 것을 사람에게 보게 하기는 어렵다. (get + O + to V / 의미상 주어 + 동명사)

10 그가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멈춰 서서 그 모든 것을 묻는 일이었다. (What절 주어 + 원형부정사 보어)

11 세네카 같은 야심가는 뒤늦게야 조용한 방식으로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Only + 부사 도치 / it occurs to A that)

12 그는 오래 설교해 온 것을 실천할 기회를 잡았다. (opportunity to V / what + 과거완료)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출생 연도 / 출신 도시 / 아버지	
총독이 된 형제 / 글 전통을 이은 조카(와 그 아버지)	
겪은 황제 수 / 어린 시절 스승	
아탈루스가 끊게 한 별미 / 저녁 일기를 배운 철학자	
로마 변호인이 법정에 설 수 있던 나이 / 폐병이 악화한 해	
요양한 곳과 기간 / 그곳 총독이던 친척	
아탈루스를 추방한 황제 / 세네카가 귀국한 해와 나이	
체스를 둔 스토아 / 그 이야기가 실린 책	
아버지가 죽은 해와 나이 / 결혼한 해	
세네카를 추방한 황제 / 아들을 묻은 지 며칠 뒤	
유배지 · 해 · 나이 / 유배 기간	
형제에게 바친 책 / 아그리피나의 아들과 당시 나이	
궁정의 중심에 선 세네카의 나이 / 네로가 황제가 된 해와 나이	
네로에게 준 관용의 책 / 그리스어에 '관용'이 없었다고 쓴 학자	
두 사람의 조각상을 만든 사람과 해 / 함께 일한 군 지휘관	

항목	답
55 AD 집정관이 된 형제 / 세네카의 집정관 시기	
모은 재산 / 브리타니아에 빌려준 돈	
두 얼굴 흉상의 짝 / 위선을 공격한 원로원 의원	
물러나려 한 해 / 대화재가 난 해 · 희생양	
편지를 받은 친구 / 음모가 일어난 해 / 함께 죽으려 한 아내	

4-3. 통합 사고 문제 — 16장과 18장을 잇는 자리

문제

16장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아리우스가 가장 아낀 덕목 가운데 하나를 몸소 보여 주어 아무도 그가 왕좌를 쉬는 데 썼다고 탓할 수 없었다는 일(124쪽 인용, 125쪽 ¶6 · ¶8)과, 18장에서 네로가 옥타비아누스와 달리 교육에 관심이 없어 보였고 전차 경주와 무대에 빠져 나랏일을 내팽개친 일(137쪽 ¶4, 139쪽 ¶4)을 비교하여, 스토아스승을 둔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있던 덕목을 영어 한 단어로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16장 또는 18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한 제자에게만 있던 덕목: Octavian was the epitome of _____; Nero neglected the state.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